김 일성 동지 와 위 대 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원 중 앙 회 フレ 로 당 농

제 24810호】 주제 1 04 (2015) 년 2월 1일 (일요일) 제32호 【루계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새해에 즈음하여 정당지도자들이 년하장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104(2015)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 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이 년하장을 보내 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 대통령, 방글라데슈 인민공화국 대통령, 필리핀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 아공화국 대통령,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 뚜르크메 니스딴 대통령, 쪼르나고라 대통령, 아르메니야공화 국 대통령, 싼 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 기네공화국 대통령,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 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 원장과 총서기대리,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 원회 총비서, 뽀르뚜갈굥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또한 김일성김정일기금 공동 리사장,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국장, 국제수의기구 총국장,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이 년

하장을 보내여왔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 원회에서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원 준 HI

Ħ

광명성절경축 전국준비위원회결성 식이 1월 21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파키스탄의 정계, 사회 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베드 안싸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광명성절인 2월 16일은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의의 깊은 날로 되고있다.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진보적인민들 의 흠모의 정은 날로 더욱 강렬해지 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뛰여 난 전략전술로 김일성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업적 을 쌓으시였다.

파키스탄국회 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 말호트라는 김정일령도자는 조 선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건설하시 기 위해 자신의 온갖 심혈을 깡그리 바친분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나 라 에 서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

로 아마르 지트 말호트라가, 서기장으 로 자베드 안싸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 여 경축모임, 토론회, 영화감상회, 도 서 및 사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 들을 조직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

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을 칭송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 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적극 소개선전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 협조 로씨야협회의 주최로 1월 22 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웨. 아. 뻬뜨로브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 비위원회에는 로씨야의 저명한 인사 들이 망라되여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업적토론회 등 정치

결 성

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타이 라자바트 프라나콘종합 대학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주체 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풀랖 이, 부위원장으로 타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차나이 롱언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 여 친선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 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핀란 드조선협회 위원장 안띠 씨까 아호 와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엑씨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 여 경축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 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의 새로운 승리와 영광의 길을 밝힌 **XI**

5대륙의 1만여개 출판보도물이 보도, 국제사회계가 적극 지지

태양조선의 창창한 앞날에 대 한 확신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올해신년사 는 세계적판도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로씨야의 따쓰통신과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 따》,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이 란의 프레스TV방송,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미국의 AP통신, 일본의 교 도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1만여개의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네 트홈페지들이 특대소식으로 광범히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하시는 영상과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신년사의 전문 또는 요지를 특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 과들을 총화하시고 올해 우리 당과 군대, 인민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 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대서특필하 였다.

쿠웨이트신문 《알 와딴》은 다음파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 에서 전체 조선민족과 자주와 평화 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에 당과 인민대 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으 며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경제 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 을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모두다 과 의지가 담긴 신년사의 조국통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 불러일으켰다.

서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아가며 혁명무 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 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 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 설에서 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 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상 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조선 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 전을 벌릴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 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의 뉴대와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 하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 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 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 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

부분은 출판보도계의 특별한 관심을

캄보쟈 에프엠 90.5방송은 다음 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 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

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 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 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 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 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 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 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 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본 다고 하시면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 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다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

방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

한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나가

겠다. 특히 연구기관건물답게

멸균실,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실험실들의 무균화가 보장될

수 있게 품을 들여 꾸리겠

다.그리고 앞선 과학기술들

을 적극 받아들여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하며 동시에 과학기

술연구소로서의 특성이 살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

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 동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

>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로씨야자유민주당, 에짚트아랍 사회주의당, 이란 《로동자의 집》, 인 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 련합,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 의 친선협회,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 민주꽁고주체사 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나이제리 아주체철학연구소조 위원장, 쓰르비 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 서,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 사상연구소조 등 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지역 및 국제기구들

이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토론회, 독보회, 좌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신년사에 대한 연구보급사 업이 인디아, 방글라데슈, 따쥐끼스 딴, 로므니아, 벌가리아, 앙골라, 민 주꽁고를 비롯한 20여개 나라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정녕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 를 앞당길 조선의 신념과 기상이 자자 구구 맥박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행성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만민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열렬 히 흠모하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폭풍쳐내달려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 내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념원을 대원수님들의 위한 강령적지침 현실로 没可우기 불후의 김 정 은 동 지 의 《세 포 지 구 경 애 하 는 고 전 적 로 작 축산기지건설을 전환을 일으키자》에 새로운 한 축산업발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 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 한 투쟁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

습니다. »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 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크나큰 환 희와 격동속에 받아안은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당의 구상과 작전에 따라 진행되는 현대적인 대규모축산기지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세포지구 넘쳐있다.

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낼 불타는 결의에

묻으 며 진 심 바치고

인민봉사총국돌격대 정치 기후의 차이가 심하므로 먹이풀 은 수확을 낼수 있었다.

일군 한경수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로작의 구절구절을 새길수록 지난 시기 토지개량전투를 내밀 면서 찾은 교훈이 크다고 하면 서 이렇게 말하였다.

현대적인 대규모축산기지건 설은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기 세를 어떻게 고조시키는가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 잡초도 뿌리내리기 힘든 불모지가 오 늘은 기름진 포전으로 전변되 기 시작한것은 부지런한 농사 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말 이 있듯이 땀을 바치고 진심을 묻으면서 애써 걸구면 어떤 땅 이나 다 옥토로 만들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주고있 다. 이미 거둔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수행해야 할 전투과 제는 방대하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과 한줌의 흙, 한포 기의 풀도 가슴에 품어안고 후 더운 심장으로 가꾸어가는 뜨거 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 세포등 판을 기름지우겠다. 구체적인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소석 회와 탄재도 더 많이 내고 수 백t의 집짐승배설물, 흙보산비 료와 같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쳐서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결 정적으로 늘이겠다. 그리고 먹 이풀판의 땅은 물이 잘 스며들 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 를 입게 될수 있으므로 흙깔이 를 하고 물이 인차 빠질수 있게 배수체계를 잘 세우겠다.

대성지도국돌격대 대장 정 광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세포지구는 해발높이 가 각이하고 지형이 복잡하며

과 작물배치를 적지적작의 원칙 에서 잘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여 그 생 가르쳐주시였다고 하면서 이렇

게 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축산기지건설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오리새와 자 주꽃자리풀, 토끼풀을 비롯한 좋은 품종의 먹이풀로 풀판을 꽉 채우겠다. 우리에게는 지난 해에 정보당 최고 수십1의 먹이 풀을 생산한 경험이 있다. 그러 나 지력을 높이고 새로운 재배 방법을 받아들였다면 그보다 높 전망을 열어놓겠다.

우리는 먹이풀생산량을 지난 해보다 2배이상 더 늘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벌써 지도국 산량을 늘여나가야 한다고 의 책임일군들과 련계하여 우 량품종의 씨앗들을 준비하였 다. 오리새를 비롯한 벼파먹이 풀을 심은 포전에 자주꽃자리 풀 등 콩과먹이풀들을 사이그 루로 심는 재배방법을 받아들 이겠다. 평당 먹이풀포기수가 많아지는 조건에 맞게 거름, 물 거름, 흙보산비료 등을 모든 포 전에 정보당 5 Ot씩 실어내기

위한 전투를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 먹이풀생산의 확고한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의

보기축산기지의 건축물답게 최 상의 수준으로!

라선시려단 려단장 김철범 은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에 게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우리 려단에서는 살림 집,집짐승우리건설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당이 바라는 응당 한 높이에 올라서자면 아득히 멀다.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귀중한 경험은 건설을 전문화하 고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지도와 감독사업을 짜고들수록 건설물 의 질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다 는것이다.

올해 려단이 수행해야 할 대 원수님의 강령적가르치심을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건설물들의 질을 2 1세기 본 심장에 새기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릴 때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 려단에는 능력있는 시공일군들 이 있으며 미장, 축조, 목공작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기능공 대렬도 꾸려져있다.

> 들이 건설기능공들을 위한 기술 이것은 려단이 살림집건섬과 집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짬 시간에 여러 작업들을 조직하여 그들의 기능을 부단히 현마하도 의 과업이다. 록 하겠다. 그리고 돌격대원들모 두가 한가지이상의 건설기능을 소유할수 있게 준비시키겠다. 또 한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높은 기능을 소유한 조건에 맞게 맡겨진 대상건설을 립체전의 방

내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로작 을 받아안은 인민보안부러단 려도 물원천은 적다. 그러나 우 상건설과제는 대단하다. 경애하는 시공과장 정명일은 흥분과 리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높은 뜻을 받들고 먹이풀판을 논밭을 가꾸듯이 품을 들여 애 써 가꾸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의하였다. 우리는 올해 포전마다 미생물 비료와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내 고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

철도성려단 참모장 로정혁

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중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당의

도 칠 계획이다. 또한 도처에 물 주머니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판 수방법들을 받아들여 그 어떤 가 물에도 끄떡없이 먹이풀을 왕성 하게 자래울 목표를 세웠다.모 든것이 부족하고 조건도 불리하 다. 하지만 뜻깊은 올해에 먹이 풀판을 완성하고 1 0월의 대축전 장에 뗫뗫이 들어설 일념으로 가 슴 불태우며 큰걸음을 내짚은 우 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전진

속도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우리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올해 먹이풀생산에 서 기어이 승리의 붉은기를 휘 날리겠다.

건축물답게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 에서 세포지구에 일떠세우는 모 든 대상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 우리는 주에 2차씩 시공일군 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짐승우리건설에서 언제나 중시 하고 무조건 관철해야 할 지상

려단이 맡은 살림집과 집짐승 우리는 해발고가 제일 높은 지 대에 건설해야 하므로 조건이 불리하다. 건물건설에도 품이 들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것은 관리공들의 생활조건과 풀먹는 법으로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 집짐승의 사양관리조건을 충분

히 갖추어주는것이다. 이 지대는 눈,비가 많이 내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 대장 박기래는 경애하는 결한 투쟁정신으로 대상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

내겠다. 살림집, 집짐승우리주변에서 땅속물을 모조리 찾아 자연흐름 식에 의한 수도화를 실현하여 관리공들의 먹는물과 집짐승사 양관리에 쓸 물을 충분히 보장 하도록 하겠다. 또한 모든 대상 건물들에 한점의 바람, 한방울 의 물도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좋은 보온재와 기와를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 더 많이 생산하겠다.

기 지 운 영 준 비 사 업 을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적극 배워나가도록 하겠다. 그 의 축산물생산기지를 꾸리는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승남은 래서 그들모두를 축산기술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을 받아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숭고한 념원과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서 청년들이 앞장설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이렇게 말하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이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야 말로 피로써 지켜낸 조국을 더 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아 름다운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 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이 투 쟁에서 위훈을 펼치는것은 우 리 시대 청년들의 더없는 영예 이고 자랑이다. 이르는 곳마다 에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이 조직되고 많은 청년들이 세포 등판의 산매가 될 포부를 안고 뿌리를 내리고있다. 그들은 자 기앞에 맡겨진 축산물생산계획 을 조국이 주는 전투임무로 여 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며 증산경쟁의 불길을

되여있다. 우리는 해당 청년동맹조직들 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그들모 두를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믿 음직한 주인으로 키워나가겠 다. 청년들을 위한 과학기술지 식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들을

세차게 지펴올릴 열의에 충만

구소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보니 책임감을 더 깊이 자 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의 뜻대로 축사학연구소를

수도건설위원회련대 련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세포지구에 축산학연

용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 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자연풍 치와 잘 어울리고 먼 후날에 가 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는것은 우리 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나게 록지조성과 나무심기도 기의 영예를 떨치기 위한 근본

하겠다. 짜고들 어

소유한 기술자, 사양공들로 키 우겠다. 강화하여 좋은 품종들을 많이 고 하면서 2월17일과학 자, 기술자돌격대 소대장 한 윤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포등판에 세상에 내놓아

데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 기초하여 발전시킬 때 성과를 쳐주신대로 집짐승육종사업을 거둘수 있기때문이다. 우선 중 얻어내는데 크게 한몫하겠다 높은 우량품종의 풀먹는집짐

역할은 매우 크다. 그것은 현 대의 축산을 높은 과학기술에 요한것이 고기와 젖생산량이 승들을 많이 확보하는것이다. 우리는 세포지구의 자연기후 적조건에 적합하면서도 먹이 를 적게 먹고 빨리 자라며 번

짐승을 많이 육종하겠다. 또한 생산성이 낮은 재래종집짐승 들을 우량품종들과 섞붙임을 하여 고기생산과 젖생산을 1.2배로 높이도록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하 면서 중앙현장지휘부 서창순 은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

게 토로하였다. 축산기지운영사업을 잘하는 데서 중요한것은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그들이 진 심을 바쳐 일하도록 하는데 있 다. 우리는 생산자들의 열의를 높일수 있게 생산조직과 지도를 짜고듦으로써 사양관리수준을 높이고 축산물생산에서도 혁신 을 일으키게 하겠다.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 가는것과 함께 건설이 끝난 다 음 그것이 인차 은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집짐승들의 사 양관리를 과학화하는것이 중요 하다. 우리는 집짐승들의 생리 적특성에 맞게 우리를 비롯한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하며 집짐승들의 활동습성 을 따져가면서 사양관리를 과학 화해나가도록 하겠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 자기의 탄생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 로 경축하게 될 뜻깊은 올해,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한껏 펼치 고 노도쳐 달리는 우리 조국의 분파 초가 년초부터 의미심장하게 흐르고 있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올해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평양육아 원,애육원과 더불어 고조되는 후대 사랑, 미래사랑의 열풍, 평양시버섯 공장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류 원신발공장에서부터 휘몰아치는 인 민생활향상열풍…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이 날로 눈부 시게 꽃퍼나는 격동적인 현실이 천 만의 심장을 무한히 끓어번지게 하 는 이 시각,

어찌하여 강렬한 그리움,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들이 그 이름만 불러보 아도 숭엄해지는 백두산으로 끝없이 달리고있는것인가.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이 도도 히 빛발치는 혁명의 성지,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만고의 투쟁사를 길이 전하는 숭엄함의 정화, 선군조선의 천만년미래가 창창히 보이는 희망의

절정. 어버이장군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무궁토록 받드는 길에 선군조선의 영 원한 승리의 봄이 있다는 민족만대번 영의 진리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으 며 우리 천만군민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언제나 안고 사신 백두산, 우리 인민 모두가 어디서나 오르는 백두산으로 마음을 달려 선군조선의 2월을 노래하다.

아직은 계곡을 씻으며 용용히 흐 르는 봄시위물소리도 들리지 않

는다. 가끔가다 눈꽃이 반짝거리며 날리

는 맵짠 겨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쏟 아져내리는 봄빛을 받아 부풀어오르 는것만 같은 계절이다.

선군조선의 만년대계를 창창히 펼 쳐주는 2월의 봄우뢰,

만고절세의 위인 우리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그 갈피갈피가 봄의 태 동을 앞당겨오는 우뢰와도 같은 열혈혁명가의 비범한 한생이다.

2월, 탁월한 선군령장의 만고의 투쟁사. 세월이 흐를수록 빛나는 그 자욱자

쾅 울려주는 사연깊은 계절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한 가슴에 안을수 있는 곳, 한생 사나운

광풍을 맞받아싸우신 빨찌산의

1 1 고지, 대덕산, 지혜산… 욱을 잊지 말라고 천만의 심장을 쾅 선군혁명이 얼마나 준엄한 가시

위대한 아들 우리 장군님의 선군 그 무수한 선군의 산악들과 지점 침략의 무리면 무리, 핵몽둥이면 핵

함께 계시는 어버이장군님을 경건히 우러르면 그이께서 사생결단으로 헤 치신 백두산바람이 우리의 가슴에서 회몰아친다.

그날은 백두산바람이 기승을 부리 던 날이였다.

인간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 한 대자연의 횡포앞에서 일군들은 날씨 가 좀 풀릴 때 오르시였으면 하는 간 절한 소원을 아뢰이였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가보아 야 진짜 백두산을 보았다고 말할수 있고 백두의 기상을 알수 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

이렇게 그루를 박으시며 밀려오는 눈사태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대자연을 길들이는 전설적령장의 호기에 넘치신 모습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의 언 덕을 수없이 넘으시며 선군혁명의 피 어린 길을 개척하신 항일의 전설적 령장의 넋을 그대로 받아안기 위한

력사적장거였다. 간난신고끝에 마침내 천하를 굽어 보는 백두산에 오르시여 횡포한 자연 의 광란을 굴복시킨 통쾌감을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엄숙한 선언이 백두산 정에 쩡쩡 메아리쳤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 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 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을 간직하면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 장도 웃으며 달릴수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혁명의 노래를 부를수 있 다. 이것은 지나온 조선혁명의 력사 가 증명한 불패의 진리이다.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 자! 이것이 내가 오늘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결의

이다! 우리 장군님의 불멸할 혁명력사는 이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백두 산총대의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신 불굴의 혁명가의 위대한 선군혁명투쟁사이다.

선군혁명의 준엄한 폭풍이 몰아쳐 간 오성산, 철령, 판문점, 초도, 12

덤불길을 헤쳐왔는가를, 강성국가 건설대전의 승리적담보가 과연 무 엇인가를 가다듬게 하는 력사의 성 새들이 아니던가.

혁명사를 눈물겹게 돌이켜보게 하는 들을 종횡무진하시며 백두산총대를 몽둥이… 더욱 억세게 벼리시던 어버이장군님 오늘도 야전복차림으로 우리와 의 철의 신념이 오늘도 우렁차게 메 아리치는 백두산이다.

서리발총창을 더 높이 추켜드는 길, 적이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는 길이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 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선군, 오직 선군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선군의지로 결사전에 나서 는 길만이 혁명이 폭풍치며 전진하 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총 포성없는 이 전쟁에서 기어이 승리 하여야 한다. 앞으로 항일유격대원들 이 겪은것과 같은 고난이 닥쳐온다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혁명할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한다!

조선혁명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 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위해 서라면 그 어떤 사생결단의 길도 서슴없이 택하시고 지구를 몇바퀴 돌 고도 남을 선군길을 헤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행로를 오늘도 길

이 전하고있는 백두산이다. 간고하고도 긍지에 넘친 력사의 그 길을 더듬어보시는 기회에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추억의 교시가 오늘 도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나는 조국과 혁명,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선군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것이며 이 길에서 우리 혁명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억세게 걸어가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넋을 깡그리 불태워온 위인만이 이런 위대한 진리로 만민의 심장에 영원 한 투쟁과 전진의 불을 활활 지필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 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군대 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 LICE.»

적들에게는 끝없는 공포를 주고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는 서리발 칼날을 세워주는 강철의 령장의 필승의 기상이 넘쳐나는 백두산의

칼벼랑이면 칼벼랑, 천길낭뗘러

말아올려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는 백 두산의 우뢰와 칼바람앞에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 였다.

혁명에 대한 열정, 선군의 의지가 더욱 굳혀지는 혁명의 성지이기에 일 이 힘들고 생각이 많아질 때면 백두 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추억도 하시고 세계에 어떤 바람이 불건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선군혁명의 궤도에서 0.001mm도 탈선하지 않으시 려는 신념, 백만대적이 뗴지어 달려 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출중한 담력,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심신에 만장약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세계가 새 천년대에 대처하는 최 선의 길은 경제주로라고 뗘들면서 저 저마다 시장쟁탈전에 열을 올릴 때 에도 그 언제나 마음달리시던 눈덮 인 백두산지구에로의 길을 헤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거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풍찬로숙하시면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를 벌리시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간고한 행군길을 걸어가시 느라 얼마나 힘드시였겠는가 하는것 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으며 그 과 정에 이룩하신 혁명업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가 하는데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바로 백 두산의 정신입니다!

몰아치는 각양각색의 광풍을 백두 산의 우뢰로 길들이고 백번도 더 터질번 한 열전을 막아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사를 더욱 빛내 이신 우리 장군님.

세상에는 투쟁으로 한생을 보낸 혁 명가도 많고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 치며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도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그렇듯 형 언할수 없는 만난고초를 이겨내시 며 초인간적인 의지력, 불면불휴의 순간순간으로 선군장정을 수놓으신 불굴의 혁명가, 걸출한 애국자는

민족행운의 2월이 없었다면 남보 다 몇곱절이나 풍파가 잦고 사나운 항로를 헤쳐야 하는 조선혁명이 어 떻게 단 한치의 후퇴나 우여곡절을 모르고 걸음걸음 승리와 영광을 뗠 지면 낭떠러지, 폐지어 달려드는 칠수 있었으라.

증견자.

총대를 앞세우고 온 나라에 소왕 청유격근거지사수정신이 나래치게 동상을 높이 모시여 장군님의 이 세상 온갖 잡것들을 통채로 휘 하시였으며 강대한 선군의 위력으로 태양상이 더욱 빛나게 해주신 시련의 동토대를 갈아엎고 민족만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번영의 알찬 씨앗을 소중히 묻고 가 꾸어 풍만한 결실을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행로의 거룩한

력사의 증견자 백두산은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피눈물나는 선군길 을 그저 안고있을수만 없어 낮이나 밤이나, 년대와 년대를 넘어 밀림의 설레임소리로 파도쳐 전하는것 아니 던가. 밀림의 설레임소리에 심장의 박동

을 함께 하며 이 나라 백두산후손들 의 가슴에서도 여름이나 가을이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너 무도 인연깊은 백두산의 흰눈이 녹 지 않는것이다.

백두산의 우뢰는 년년이 위대한 승 리를 터치는 승리의 봄우뢰이다. 조선의 2월은 침략의 무리들을 짓 뭉개며 창창한 앞날을 열어준다.

세기를 밝히는 태양의 집에서, 천 하를 굽어보는 정일봉마루에서, 봄마 중을 서두르는 소백수의 포근한 안 개에서 뿜어져나오는 훈향으로 하여 세계는 비에 씻겨진 신선한 대지마 냥 정화되고 자주의 봄을 향하여 질 풍같이 달릴수 있게 된것이다.

래일의 더 큰 승리에 대한 확신으 로 가슴부풀게 하는 2월.

장군님의 력사가 더욱 줄기차게 흐 르게 하시려는 일념으로 우리의 모 든 생활과 투쟁이 시작되고 이 땅의 낮과 밤이 흐르게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버이장군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손잡아 이끄시며 축복해주신다는 그 절대불변의 믿음으로 세계에 어떤 바 람이 불건 신심드높이 이 조선,이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우리 장군님의 신념, 장군님특유의 매력이 발산되는 백두산을 사랑하시 며 그 언제나 장군님의 혁명생애 에 마음을 얹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천품으로 타고나시고 마음을 늘 백두산에 두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행운의 2월,승리의 2월을 무 궁토록 빛내여주고계신다.

어버이장군님과 운명의 피줄을 끊을수 없이 잇고 장군님의 사상과 신념이 응축되여있는 백두산의 기상 대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어버이장군님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 력사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사를 더 광휘롭게 빛내주시는 고결한 츳정과 의리의 력사이다. 온 세계가 대국상을 당한 조선을

지켜볼 때 비운의 장막을 가시며 조 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크사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치는 명 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있고 장군님의 영생이 있는 선군정치의 계승임을 과시한 력사적인 장거였다.

피눈물이 흐르던 강산에 영원한 선군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이 나 라의 천만가슴마다에 수령영생의 신 념이 거목같이 뿌리내리게 하시였으 며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신념이 하늘땅에 차고넘치는 숭고한 현실을 펼치신 우리 원수님,

천리방선을 찾으시여도 어버이장군님께서 걸으신 로정을 정신으로만 하자.하여 백두에서 밟으시며 장군님의 간고한 선군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혁명사를 경건히 추억하시고 장군님만 을 생각하시며 천만의 가슴속에 장군님의 태양상이 언제나 꽉 차있 게 해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지난해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백두 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어버이장군님의 사상이 날로 빛나고 더욱 꿋꿋이 이어갈 심장의 맹세를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조 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원불멸할 영상이시다.

력사의 그날에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뇌리에 사무치게 새겨진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정신적기둥으 로 삼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강성국 가건설과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 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 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 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입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적대세력 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 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히시는 으로 폭풍쳐가는것이 오늘의 우리 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밝게 빛나는 우리

장군님의 태양상을 보았고 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이 줄기차게 흐르는 격동적인 현실, 우리 장군님은 영생 하신다는 진리를 가슴뭉클하게 절감 하였다.

혁명투쟁에서 리념문제는 생명이 다. 리념이 뚜렷할 때 그 혁명은 미 래에로 곧바로 항행해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암초에 부딪쳐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

백설의 바다를 장엄히 펼친 2월 의 백두산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생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리념이

체현되여있다. 우리 조국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강국으로 길이 번영 하기를 바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이 곧 백두산대국의 리념이다.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하 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열가지 일을 해도, 백가지 일을 해 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그리도 념원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리자! 2월의 백두산은 이렇게 소리높 이 웨치며 천만의 철의 대오를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폭풍쳐 부

백두산의 우뢰를 피끓는 가슴에 새 기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심장 의 박동을 함께 하는 그 길이 민족대 통운의 2월을 천만년 빛내이는 길

이다. 2월의 백두산우뢰를 들으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 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 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 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

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 신으로 걸음걸음 온갖 적대세력들을 제압하고 날에날마다 혁혁한 조선속 도를 창조하는 우리 조국의 위용과 더불어 조국해방 일흔돐,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는 장쾌한 승리의 축포성으로 천하를 진

감할것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영원한 일편 단심을 안고 사는 백두의 후손들의 가슴속에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등대 백두산은 무궁토록 솟아있을것

본사기자 량 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꽃피워갈 불라는 열의 2월의 강산에 차넘친다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 달려오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아름답고 장쾌한 흰눈세계에 잠겨있다.

백두산밀영기상관측소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백두산밀영 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5cm나 더 많은 눈이 내렸 다고 한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그 칠새없이 내리는 눈발속에 펼쳐 진 백두밀림도 장관이지만 흰눈 세계와 뚜렷이 대조되는 붉은기 를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정일봉을 찾아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행군대오는 더 볼만 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 0f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년초에 평성의학대학 교원, 학생들이 붉은기를 휘날리며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데 이 어 삼지연군청년동맹 일군들과 청년들, 혜산농림대학, 혜산의 학대학 학생들이 답사길을 이어 갔다.

답사행군대오는 광명성절을 앞두고 더욱 늘어나고있다. 조선 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과 혜산 청년광산 로동계급, 량강도와 혜 산시청년동맹 일군들과 청년동 맹원들 그리고 김정숙군과 대혹 단군을 비롯하여 량강도의 수많 은 근로자들과 온 나라 방방곡 곡에서 달려온 답사자들…

소백수내가에서, 흰눈을 듬뿍 실은 아지들을 한껏 펼친 천고 의 밀림우에 장엄하게 솟은

얼마전 우리

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거룩한

여기 백두산밀영에서 우리는 수많은 답사자들을 볼수 있

소백수물을 물통에 정히 담 는 답사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가슴에 끓어넘치는 불타는 결 의를 담아 감상록에 또박또박 글을 남기는 청년대학생들의 얼굴도 보인다.

우리와 만난 백두산밀영혁명 전적지관리소 과장 최련희동무 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산밀영이 개영된 때로 부터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답사자수는 무려 600여만명 을 헤아립니다. 지난해에는 그 전해보다 2만명이나 더 많은 답사자들이 우리 백두산밀영을 찾아왔습니다. 뜻깊은 올해의 광명성절을 앞두고 답사행군 대렬은 더욱 늘어나고있습 니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 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이후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열풍이 더욱 세차게 타올 라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는 답 사자들의 수는 날을 따라 늘어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 을 영원히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려는 철석의 신념과 충정의 열의가 2월의 정일봉기슭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우리는 유서깊은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찾아온 평성의학대학 과장 리광선동무와 그의 아들 리무현동무를 만났다. 리무현동 겨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왔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마음속으 었다고 한다. 자기를 백두의 이 로 우러르며 지난 20여년간 깔처럼 꿋꿋이 키우려는 아버지 정일봉을 찾고있는 만경대구역 의 웅심깊은 마음을 잘 알고있 팔골소학교 교원 리성실동무, 는 리무현동무이기에 해마다 2 서성구역 남교유치원 원장 공춘 월을 맞을 때면 지성어린 지원 옥동무와 원아들… 물자를 안고 백두산밀영고향집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을 찾군 한다고 한다. 뜻깊은 올 해에도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백두산밀영을 찾은 아버지와 아 들의 마음속에는 당의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 들어갈 충정의 맹세가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

그리움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백두산밀영

고향집으로 끊임없이 달려오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승리 의 한길만을 걸어갈수 있는것 아니라.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 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백두산대국의 영상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록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을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 지 완성해갈 철석의 신념과 의 지가 맥박치고있다.

그렇다.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여가는 그 길에 우 리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것 을 확신하고있는 우리 천만군민 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두산 밀영고향집에로의 행군길을 줄 기차게 꿋꿋이 이어갈것이다. 글 및 시진 특파기자 전철주

위 대 한

지난 시기 철령에로의 답 사행군을 진행하고 고급중학 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철령 답사길에서 다진 맹세를 지 켜 조국보위초소와 원산군민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도의 어렵고 힘든 대고조전투장들 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올해 에도 철령답사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

강원도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

강원도안의 고급중학교 졸업 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반학생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시, 군별로 대오를 짓고 붉은 기를 펄펄 날리며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철령에로의 답사 행군길에 오른 답사자들의 가슴가슴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결의로 충만 되여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

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들입니다.》

직한 계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 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

였다. 특히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 들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 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 청춘의 슬기 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 해에 도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철렁답사행군과 결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얼마전

도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적증견 자로 거연히 솟아있는 철령 을 향하여 일제히 답사행군 을 시작하였다.

졸업반학생들의 얼굴마다 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 시고 넘고넘으신 철령을 언 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조국 땅 그 어디에 가도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열혈청 년이 될 굳은 결의가 한껏

철령의 산정에 올라 목청 껏 만세를 웨치고 신념의 노 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른 졸업반학생들은 결의모임을 가진 후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어려있었다.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탄 원한 학생들은 당의 품속에 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난 새 세대답게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총 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청춘 시절을 가장 보람있게 보낼 결

의들을 굳게 다지였다. 또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 을 비롯한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일터마다에서 청춘의 슬기 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조선청년의 기개를 떨칠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특파기자 신 천 일

한줄기 사랑은 약수에도

발자취가 뜨겁 게 새겨져있는 강서약수공장을 찾았다.

푸른색철판기와지붕을 얹은 산뜻한 공장건물들이 소소리높 은 키나무들에 둘러싸여있는 공 장전경은 말그대로 한폭의 그림 처럼 아름다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 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 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 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안생을 쌍그리 바지시며 소국 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지배인 림선화동무는 먼저 공 장의 연혁소개실로 우리를 안내 하였다.

여러가지 병치료에 특효가 있 어 오래전부터 널리 소문난 강 서약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비로소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 에 적극 리용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사적물 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공장에

강 서 약 수 공 깃든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이어 우리는 유리병약수생산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고르 롭게 돌아가는 기대들, 흐름선을 따라 줄지어 흘러나와 상자에 그 득그득 담기는 약수병들…

돌아보는 우리에게 림선화동무 는 이 기대들이 모두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 적인 기대들이라고 하면서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아오시였 던 주체 9 9 (2 0 1 0) 년 1 1월 24일에 깃든 가슴뜨거 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시였던 수지병약수생산현 장입구의 계단앞에 섰다. 잊지 못할 그날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약수생산공정인데 꼭 봐야 한

가슴후덥게 새겨안았다.

공장의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 약수의 질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 다고 간平히 당부하시였다.

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생산공정을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보시면서 약수를 더 많이 생사하

한계단 또 한계단 오르실 때 이 계단이 왜 그리도 높아보이던지 그때의 안타깝던 심정을 이야기

> 물젖어있었다. 2 7개의 계단, 진정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멀고 험한 길을 쉬임없이 이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이 어려있는 계단이여서 우 리는 쉬이 눈길을 뗼수 없었다.

> 하는 림선화동무의 목소리는 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다녀가신 이후 다른 나라의 이 른난 약수도 보내주시며 제품의 질을 더 높이도록 이끌어주시 였고 공장의 명칭도 약수를 생 산하는 공장의 성격에 맞게 《강서약수공장》으로 부르 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 옛 약수터 를 찾았다. 이곳은 다시 찾은 강 서약수라는 감동깊은 혁명일화 가 생겨난 곳이였다.

뜻하지 않게 약수샘줄기가 뚝 끊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력한 연구집단을 보내주시여 본래보

다 량도 더 많 고 질도 더 좋 은 새 약수샘줄 기를 끝내 찾아 내도록 하시였

던것이다. 우리는 끝없이 뿜어져나오는 약수샘줄기를 오래도록 들여다 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 을 싣고 오늘도 끊임없이 솟구 치는 약수는 하많은 사연을 속 삭이고있는 듯싶었다.

그렇다. 어버이 그 사랑은 마 를줄 모르는 약수가 되여 오늘 도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것 아닌가.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 유훈을 지켜,장군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가 닿도록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 남포시와 강서구역의 일군 들과 돌격대원들에 대한 이야기 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 여 많은 일을 해놓은 사실들에 대하여 감명깊게 들었다.

우리는 일편단심 위대하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한 시도 잊지 않고 보답의 한길만 을 가고갈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마음을 가슴뜨겁게 느끼 며 공장을 나섰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성간군도로보수관리대 공훈도로관리공 김성自自성과 가족소대원들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 는 일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 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해나가도록 하 여야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은 장자강을 두텁게 얼구고 강산을 흰눈으로 덮었어 도 구봉령의 공훈도로관리공 김 성녀녀성과 가족소대원들의 마 음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 사무치는 그리움이 뜨겁게 불타고있다. 2월의 이 아침도 김성녀녀성

다시 사연깊은 구봉령의 령길에 나섰다. 《나이도 많은데 오늘만은 좀 쉬십시오.》

은 도로관리원완장을 두르고 또

가족소대원들이 저마다 만류 하건만 그는 오히려 손을 내저

으며 말하였다. 《내가 늘 말했지. 구봉령에 올라야 마음이 편하다고. 내 걱 정은 말고 어서 따라들 오게.》 이렇게 말하며 스적스적 걸음

을 내짚은 김성녀녀성,그도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76살의 로인이다. 하다면 어이하여 김성녀녀성

은 청춘시절도 바쳐가며 수십년 간 지켜온 이 령길을 자손들을 거느린 할머니가 되여서도 떠날 줄 몰라하는가. 구봉령,이 령길에서 김성녀

의 영광을 맞고 보냈다. 처녀시 절부터 그는 도로관리원이 되여 비에 령길이 패이면 흙을 날라 다 펴고 돌을 쌓았고 눈내리는 겨울이면 찬바람 불어치는 령길 다. 결코 헐치 않았다. 허나 보 람은 한없이 컸다. 만경대혁명 가문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진 령길이여서 그는 희망도 포부도 령길관리에 고스란히 바쳤고 자

로관리원으로 내세웠다. 그러던 김성녀동무가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분에 넘치게 이 령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뵈옵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

식들을 모두 령길을 지키는 도

주체 8 9 (2 0 0 0)년 8 월 3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 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구 -봊령에 오르시여 김성녀동무와 가족소대원들을 만나주시였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30여 년간 인적드문 구봉령길을 지켜 가고있는 김성녀동무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며 애국자라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다. 동무는 삶의 보람과 기쁨, 인생 그러시고는 한생 흙과 돌을 다 루어온 거치른 그의 손도 뜨겁 게 잡아주시며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시였다.

그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구봉령을 잊지 못하시고 김성녀 동무와 가족소대원들의 생활에 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 라 은정어린 생활필수품들도 한가득 보내주시였으며 조선 로동당창건 60돐 경축행사를 비롯한 대회들에 불러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거듭거

듭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산골의 이름 없는 녀성도로관리원,

참으로 전설같은 사랑의 그 이야기는 진정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인민들사이에 오가는 정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며 숭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 폭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은 오늘도 인생의 로년기에 이른 김성녀동무에게 마를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안

겨준 생명소였다. 하기에 김성녀녀성은 매일 같이 구봉령의 령마루에 올라 멀리 평양하늘가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이군 한다.

(어버이장군님,장군님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높고 험한 령길 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십니 다. 그 길에 비단필을 깔아드리 는 심정으로 저는 물론 온 가족은 대를 이어 끝까지 여기 구봉령의 령길을 지켜가겠습 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안고 김성 녀녀성은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오늘에도 변함없이 눈길을 헤치

며 구봉령으로 오르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절절한 그리움과 불타는 맹세를 안고 구봉령일가는 오늘도 령길 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 웅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하노이

웰 남 사 회 주 의 공 화 국 주 석

쌍 동 双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당신 과 귀국정부와 친선적인 웰남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웰남인민이 웰남공산당의 령도밑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웰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

다란 성과들을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귀국인민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이 있을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나는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과 웰남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 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주체104(2015)년 1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남

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웰남 국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형제적인 조선국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 니다.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품들여 가꾸어오신 웰남과 조선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지난 65년간 여러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왔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령도자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에 의하여 이 훌륭한 관계가 두 나라 인 민들의 리익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

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형제적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계속 이룩할것을 축원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그리고 당신의 중요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웰 남 사 회 주 의 공 화 국 주 석

떤 2015년 1월 31일

하노이

광 으

배천군의 드넓은 협동벌에는 이 땅우에 토지정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몸소 전투현장을 찾 아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 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아래 사회주의토지답게 번듯하 게 정리된 군의 협동벌들이 년 초부터 니탄채취전투로 부글부 글 끓어번지였다. 그 앞장에는 군의 청년들이 서있었다.

청춘의 열정을 바쳐 뜻깊은 올해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 갈 불같은 일념안고 니탄채취장 에 달려나간 군안의 청년들은 붉은기를 세차게 휘날리며 힘찬 전투를 벌려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많은 니탄을 더 생산하는 자 랑찬 로력적위훈을 펼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불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올 해 군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안아 올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니탄 생산목표를 레년에 없이 높이 세 웠다. 짧은 기간에 근 2만의 니 탄을 캐내야 하는 과업을 군의 청년들이 스스로 맡아나섰다.

풍 요 한 군

으랴.

니탄채취전투장에는 붉은기가 숲을 이루고 방송선전차와 녀맹기 동예술선동대 등이 전개되여 전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군내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 장에서 달려온 1천 수백명의 청년들이 함마와 정대, 곡팽이로 뗭뗭 얼어붙은 땅을 파내면서 치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렸다. 장명일, 홍제화동무를 비롯한

군청년동맹일군들이 현장에서 청

년들과 함께 침식하면서 생산지

휘도 전투적으 로 하고 어려운 모퉁이에 어깨 를 들이밀며 대 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 켰다.

군급기관. 기업소의 청년 동맹원들이 니 탄캐기의 앞장 에 섰다.키를 넘는 구뎅이안 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불 리한 조건이였 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저저마다 뛰여 들어 불이 번 쩍 일게 일손 을 다그쳤다. 조옥희협동

농장과 오봉협

동농장의 김성국, 전금철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원들이 돌파구는 우리가 열자고 불같이 웨치면서

함마와 정대로 언땅을 까내며 련 일 실적을 올리고있을 때 봉화, 화산, 금산협동농장의 청년동맹원 들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그날 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쳤다.

이들만이 아닌 군의 많은 청년 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 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고향땅 을 빛내일 불타는 일념안고 니탄 캐기전투장에 달려나와 청춘의 열정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 이 바쳤다. 군급기관과 각 협동 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성의 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니탄 채취장에 달려나가 청년들의 투

쟁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군내 청년들의 드높은 열의와 힘찬 투쟁으로 하여 근 2만t의 니탄생산목표는 일정계획을 앞 당겨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가 을

군의 일군들은 뜨락또르와 자 동차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 원하여 생산된 니탄을 여러 협 동농장들에 제때에 수송하도록 조직사업을 따라세워 모든 협동 벌들이 새해농사차비로 더욱 끓 어번지게 하고있다.

안 아오 긴

곡증산투쟁의 앞장에 설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지금 배천군의 청년들은 농사

차비에서뿐아니라 올해의 모든

영농공정들에서 선군청년전위

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며 알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

활 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2(2013)년 2월 1일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실발전 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키자》를 발표하신것은 3대혁 명소조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새 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 고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난 2년간 경제강국건설과 인 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 장마다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로작의 정 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사 업을 중시하고있으며 3대혁 명소조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 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3대혁 명소조운동발단 4 0돐을 계기 로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 명소조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 져오게 하는 불멸의 지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 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3대혁명소조사업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 다고 하시면서 새 세기 산업혁 명수행에서 3대혁명소조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 로 밝혀주시였다.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의 자자구구를 뼈에 새기고 파 견단위들에서 기술혁명을 틀어 쥐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 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 하기 위한 사업에 청춘의 지혜 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두해전 전국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장에서 3대혁명전 위들이 다진 충정의 맹세는 빛 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신의주시와 혜산시, 해주시, 라선시, 은률군을 비롯한 각지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절세위인들 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모자이크벽화를 더 밝고 환하게 모시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마음과 지성을 다 바치였다. 또 한 금수산태양궁전에 수종이 좋 은 나무들과 꽃관목, 꽃뿌리들 을 보내주는 미풍도 높이 발휘

하였다. 지난해에 수도 평양에서 열린 제 4 차 전국 3 대혁명소조기술 혁신전시회는 현실발전의 요구 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화을 일으키는데서 또 하나의 큰 자욱을 내짚은 뜻깊

은 계기였다. 전시회를 계기로 3대혁명소 조원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기수로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두뇌전,기술전으로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갈 신념과 의지

를 더욱 굳게 하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들이 기술혁신의 불길, 최첨단 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 였다.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3대 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 들과 함께 새로운 내화물재료를 연구하고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전기로의 수명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고 강철생산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 우리 당의 3대혁명전위라는 고귀한 부름을 가슴깊이 간직하 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폭발용접 에 의한 대형수력발전기의 부분 품제작방법을 내놓아 값비싼 원 료를 절약하면서도 발전기의 질 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확고 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 두뇌전, 기술전을 파감하게 벌려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에 새기고 락 원기계련합기업소의 3대혁명 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주파수를 조절하는 방법으 로 천정기중기의 원격조종체계 를 완성하는 등 많은 기술혁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밀페식카 바이드전기로를 비롯한 여러 설 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 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서 성 과를 거두었다. 북창화력발전련 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 은 새로운 정밀주조방법을 연구 완성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급수 뽐프날개를 우리 식으로 만들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인포탄광의 3대혁명소조원 들은 현장기술자들과 함께 착암 기의 기름공급장치를 합리적으 로 개조하고 전차메달의 수명을 늘이였으며 음파대전식물분사 기를 새로 제작하여 현장에 도 입함으로써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두단오리공장의 3대혁명소 조원들은 태양열물가열기를 제 작하여 공장에서 더 많은 알과 고기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김책수산사업소의 3대혁명소

조원들은 만능조리개그물을 설 계하고 랭동설비의 현대화를 실 현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풀 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 게 하였다.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원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연 구한 극미량살초제를 현실에 도 입하기 위한 사업과 앞선 영농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좋은 성과 를 거두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재령 군 삼지강협동농장, 함주군 동 봉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 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극미 량살초제를 널리 받아들이기 위 한 사업과 아미노산미량원소복 합비료, 티오균비료생산을 다그 치고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도입 하여 농업생산을 높이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자강도와 함경남 도, 황해북도, 평양시와 남포시 를 비롯한 각지에 파견된 3대 혁명소조원들은 파견단위들의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기 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

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 적문제들을 기술혁신의 종자로 찾아쥐고 완강하게 밀고나감으 로써 수많은 기술혁신성과를 이 룩하였다.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 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 고들어 3대혁명전위들이 새 세 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척후병, 기 수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 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지난 2년동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 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에 도 입한 기술혁신성과는 무려 8 4 9 0 여건에 달한다.

8 4 9 0여건의 기술혁신성과. 이 자랑찬 성과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3대혁명소 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3대혁명소조사 업을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

는 결실이다. 오늘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 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 우 크며 3대혁명전위들의 기세 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과학기 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부강조 국건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 의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 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새 세기 산업혁명의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국의 3대혁명전위들이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을 앞장에서 힘있게 이끌어나 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농사차비로 들끓는 미곡, 신암, 동봉을 비롯 한 각지 농촌들과 화력탄증산의 불길 세차계 타 오르는 순천과 덕천, 북창과 득장지구의 탄전 들, 대안과 락원 아니 전국의 대고조전투장들마 다에서 우리의 미더운 3대혁명전위들의 새해전 투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다.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격동적인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올해의 총공격전 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오늘의 이 벅찬 현실은 얼마나 좋은가.

◇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자! 이것은 3대혁명전위들의 불같은 지향이며 철석 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 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

새 세기 산업혁명, 이 시대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 리는 CNC화를 위하여 애국의 대용단을 내리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군 한다.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부 강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CNC 화에 돌리신 어버이장군님, 노래 《돌파하라 최 첨단을》을 들으실 때마다 CNC화실현을 위하여 헤쳐오신 험난한 길들과 마음쓰시던 일들이 되

새겨져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장군님. 정녕 새 세기 산업혁명은 어버이장군님의 눈 물겨운 애국헌신의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 하여 탄생한 우리 식의 기술혁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3대 혁명소조가 한몫 단단히 할것을 기대하고있다. 과 학과 기술의 시대에 주체교육을 받으며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소 유한 청년지식인으로 자라난 3대혁명소조원들은 마땅히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앞장서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기수가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 가는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가 있고 혁명적본분이 있다.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차게 내달려야 할 오늘의 총공격전은 3대혁명전위들을 부른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새 세 기 산업혁명의 기수들인 3대혁명전위들이 뼈 속깊이 새겨야 할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판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 까지 싸우는 혁명정신으로 과학탐구의 생눈길 을 헤쳐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대고조전역을 창조의 열 풍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창조본때로 첨단수준의 새 기술성과 를 이룩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 들과 가치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 비날론생산 에 크게 이바지한 2. 8비날론련합기업소 3대혁명 소조원들처럼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기 술혁신의 종자로 찾아쥐고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 을 보고야마는 실천가형의 척후병이 되여야 한다. 자기 땅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민족자존의 기상으로 두뇌전, 기술전

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의 명수, 최첨단돌파 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들끓는 현장에 깊이 들 어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과의 창조 적협조를 강화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 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지식 과 정보의 생산과 류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나마 만족해한다면 그만큼 뒤떨어진다는것을 명 심하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 세기 산업 혁명의 척후병,기수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 고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오늘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

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이미 배운 지식에 순간이

3대혁명전위의 영예는 어디

에 있는가. 평양자동화기구공 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 물 음에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이곳 소조원들이 공장에서 보낸 기간은 길지 않지만 설비 들의 현대화와 생산에서 절실 히 요구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 을 수많이 풀어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그들은 최근에만도 국가발명 증서와 많은 과학기술성과등록 증, 창의고안증서를 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첫걸음 부터 큼직이 내짚고있다.

소조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 있는 모습은 볼수록 미덥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보탬을 주 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을 한가지라도 더 내놓으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들 의 창조의 숨결이 뜨겁게 느껴진 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 건에서도 그들은 계획하였던 풍력 발전기를 자체의 힘으로 우리의 실 작 등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정에 맞게 여러대나 만들어냈다. 해제끼면서 난판을 극복해나갔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 성 납승다. 마침내 분쇄기용대치차의 질

쇄기용대치차의 질제고문제가 되였다. 제기되였을 때였다. 많은 전기와 로력,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제품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의 질과 생산성을 몇배로 높일 수 있는 실리있는 문제였다.

그만큼 헐치 않은것이여서 누 구나 선뜻 나서기를 저어했다. 이러한 때 3대혁명소조원 리 재건동무가 이 문제를 기술혁신 과제로 맡아안았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분

공연히 헛고생이나 한다며 다른 과제를 골라잡으라고 권 가 소조기간에 아무것도 남기 지 못할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 시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 푹 이면 다른 기술혁신과제를 여 러건은 할수 있다고 말하는 사 람도 있었다.

그러나 리재건동무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문헌연구며 자재구입,설비제

제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성과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량심이 가리키는 길을 택했 을뿐입니다. 현실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라는것을 알면서 도 어렵다고 외면한다면 소조 원의 량심을 버리는것이 아니

하게 되였다.

소조원들인 김일경, 리주향동 무들과 함께 6직포직장에 들렸 을 때였다. 소조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기 라도 한듯 여기저기서 직포공들이

달려와 저저마다 그들을 자기 기 대앞으로 이끌려고 싱갱이를 하는 것이였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기

대들로 다가가는 소조원들, 그 들을 바라보며 직장의 한 초급

겠습니까.》

소조원의 량심, 그것을 증명 하는 증서는 없다.

하지만 소조사무실의 벽에 주 런이 걸려있는 창의고안증서며 과학기술성과등록증들이 우리 에게는 그 어떤 기술실무적인 증서가 아니라 3대혁명전위들 의 순결한 마음이 비껴있는 량 심의 증서로 뜨겁게 안겨왔다.

얼마전 우리는 사리원방직공 일군은 소조원들만 보면 늘 저 장 3대혁명소조원들을 취재하 렇다고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는 과정에 뜻밖의 사실을 목격 기대앞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천의 귀조직형성기구며 도투 마리운반밀차를 비롯하여 유연 창대직기의 정상가동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두 소조원의 기술혁신성과들을 일일이 가리 키며 제 자식자랑이라도 하듯 신이 나서 설명하는 초급일군. 일도 한결 헐해지고 생산도 올라가니 직포공들모두가 좋아 한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

이였다. 《소조원들모두가 우리 직장의

한 영 철

순천화력발전소 3대혁명소 를 단상교류로부터 보호할수 있 조에서 새로운 장치제작을 목표 는 새로운 장치를 제작해냈다. 로 내세웠을 때 일부 공장기술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있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꽤 해낼수 있을가?)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종 업원들도 제기하는 물음이였다**.**

주인이고 보배들이지요.비록

직장종업원명단에는 소조원들

의 이름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

들을 우리 직장종업원으로 알고

제작한 장치가 첫 시험에서 실 패했을 때에는 그 물음이 더욱더 부각되였다. 그러나 이 과제를 맡은 소조원 김학문동무와 공장 의 한 기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밤을 패며 기술문헌작업을 하면서 사색을 무르익혔다. 회로 도도 자체로 설계하면서 수십차 례의 시험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원인을 찾게 되였다. 마침내 전류수감방식으로 한 대도 아닌 여러대의 3상전동기

명단에는 소조원들의 이름 이 없지만 직장종업원들의 가 슴마다에는 직장의 진정한 주 인으로 소중히 새겨져있는것 이다. 본사기자

갑 탄

기술자들의 이 장치는 설비에 도입되여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에 빠지면 있는 길도 보이지 않지 만 자기의 힘과 기술에 대한 확 신, 완강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이 있으면 없는 길도

이것은 발전소종업원들에게

헤쳐나갈수 있다는것을. 처음에 의문을 표시했던 기술 일군들은 무릎을 치며 역시 3대혁명전위가 다르다고 감탄

을 금치 못해하였다. 결국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셈이 되였다.

허 일 부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 강계 도착, 포평을 향해 계속 행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 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 신 40돐기념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가 목 적지를 향하여 련일 행군을 다 그치고있다.

향산을 떠나 희천, 전천, 성간 을 거치는 과정에 답사행군대원 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나날에 아로 새기신 불멸의 혁명사적을 전하 는 전천객주집과 별하려인숙을 참관하였다.

명문고개 등을 넘으며 그들은 북방의 모진 추위와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걸으신 천리길이야 말로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력사가 알지 못한 숭고한 각오와 비상한 의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께서

새기신 성스러운 혁명의 길이였 음을 깊이 체험하였다.

높은 조직성과 강의성,집단 주의정신으로 험한 령들을 넘고 넘으며 행군대원들은 1월 30일 강계시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이곳에 들 리시여 김형직선생님께 《강계 무사도착》이라는 전보를 보내 신 력사의 고장을 찾은 감격이 답사행군대원들의 얼굴마다에 어려있었다.

혁명가요들을 우렁차게 부르 면서 용기백배,기세충천하여 시내로 들어서는 답사행군대원 들을 자강도와 강계시의 책임일 군들과 청소년학생들, 근로자들 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답 사 행 군 대 원 들 은 먼저 강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 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 이어 그들은 강계객주집 강계우편국혁명사적지를 찾아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 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 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

>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백승 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강국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령도따라 끝없이 빛내여나가 기 위해 배우고 또 배울 굳은 의 지에 넘쳐 1월 31일 강계시를 출발하여 포평으로 향하였다.

> > 【조선중앙통신】

명학단광 3갱 채단공이였던 전경철동무와 가족지원소대장이였던 전영심동무에

명학탄광에 가면 탄부들모두가 뜨겁게 추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들이 바로 3갱 채탄3중대 채탄공이였던 전경철동무와 그의 누이인 가족 무였다. 지원소대장이였던 전영심동무이

다. 그들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 고 온 탄광이 화력발전소에 보 내줄 석탄을 1t이라도 더 생산 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던 지난해 12월 어느날, 탄팡마 을의 집집에 경사가 났다. 바다 먼 산촌의 탄팡마을에 바다향기 를 풍기며 당의 은정이 깃든 물

고기들이 도착하였던것이다. 일군들도, 탄부들도, 그 가족 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불 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그날 오후 갱으로 들어가는 사람 들속에는 전경철동무를 비롯한 3 갱 채탄3중대 탄부들도 있었다. 말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 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뜨거웠다. 이윽고 그들은 지하

막장을 차지했다. 3갱 채탄3중대가 차지한 막장 조건은 갱적으로 가장 불리했다. 올리굴길이가 다른 중대보다 길뿐만아니라 캐낸 석탄이 석수 에 젖어 조구통으로 잘 내려가 지 않았다.

전경철동무는 삽을 들고 캐낸

석탄을 조구통으로 밀어내기 시

작하였다. 한참 젖은 석탄과 씨

름질을 하며 땀을 흘리는데 누군 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안전등불빛에 드러난 그는 중 대가족지원소대장인 전영심동

《아니, 누이가 어떻게 여기 까지 왔어요?》 《탄부들에게 줄 지원물자를 가지고왔다. 왔던김에 나도 땀

을 좀 흘려보자꾸나.》 전경철동무가 어쩔 사이도 없 이 삽질을 하기 시작하는 전영 심동무에게 옆에서 작업을 하던 림춘명동무가 한마디 했다. 《소대장아주머니, 어서 올라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 을 때였다. 전영심동무가 막장천 정의 한쪽구석에서 엄청나게 큰돌 이 움쎌거리는것을 발견하였다. 《경철아, 저게 뭐냐?》

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

가보십시오. 우린 아주머니의

던 전경철동무는 가슴이 철렁했 다. 탄광에서 흔히 말하듯이 이슬 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순간 《피하라.》하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가까이에서 굴진작 업을 하던 두명의 탄부들은 전경 철, 전영심동무들이 밀치는 억센 힘에 굴밑으로 나덩굴었다.

소리. 순간에 벌어진 일이였다. 한동 안 어안이 벙벙했던 서철성, 림춘 명동무들은 뒤미처 벌어진 엄청난 사태를 깨닫고 목청껏 불렀다. 《경철동무一》, 《소대장아

이어 큰돌이 떨어지는 요란한

주머니―》… 이렇게 그들은 33살, 40살의 한창나이에 우리곁을 떠나갔다. 돌이켜보면 전경철동무가 탄

광에서 일한 기간은 5년, 전영 심동무가 가족지원소대장으로 사업한지는 4년밖에 되지 않는 다. 그러나 동지들과 집단에 남 긴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

답고 고결한것인가. 채탄3중대장 신현송동무는 전경철, 전영심동무들을 추억하 며 이렇게 말하였다.

《늘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인생의 락으 로 여긴 사람들이였습니다. 타 고난 명창은 아니지만 오락회시 간이면 제일먼저 일어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동무들의 사기 를 돋구어주던 전경철동무와 늘 탄부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 하며 웃음짓던 전영심동무의 모 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중대장의 눈가에 추억의 빛이

력력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군사복무 를 마치고 제대되게 된 전경철동 무는 대학추천을 받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나라의 석탄생산문제를 두고 그 토록 마음쓰고계신다는 이야기 를 듣고는 삶의 위치를 대학이 아니라 탄광에 정하였다.

한생을 석탄산을 높이 쌓는것 으로 당을 받들어온 아버지처럼 참된 탄부가 된 다음 대학에 가 고싶었다.

전경철동무가 중대에 갓 배치 되여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 느날이였다. 중대장 신현송동무는 새벽교대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 지 않는 전경철동무를 두고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여느때는 자기 교대시간이 되기도 전에 갱 으로 들어서던 그였던것이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갱안으로 들어가던 신현송동무는 뒤에서 어둠을 헤가르며 따라서는 전지

오는 사람은 전경철동무였다. 《교대시간도 잊고 굳잠을 잔 모양이구만. 무척 힘들어하는것 같 은데 오늘은 좀 쉬는게 어떻소.》 《난 일없습니다. 이 전경철이 몸은 비록 체소해도 속은 무쇠

불빛에 걸음을 멈추었다. 다가

한가지입니다. 작아도 고추알이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웃음을 짓던 중대 장은 그의 옷이 땀으로 화락하

니 젖어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어디 열나는데는 없소? 그 런데 등에 진 배낭은 뭐요?》 중대장은 배낭을 받아내리고 아구리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함마를 비롯하여 소공구들이 들

《득장탄광기계공장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막장소공구가 부족하여 작업에 지장을 받는다 는것을 알고서야 어디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어있었다.

순간 중대장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 이 밤중에 그 수십리 길을?!) 중대장의 머리속에는 몇해전 군사복무를 하던 전경철동무가 표창휴가로 집에 왔을 때의 일

이 생각났다. 하루도 번지지 않고 막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일하던 전경철동 무였다. 휴가전기간을 석탄생산 에 바치고 떠나는 날 그는 말했 었다. 조국보위초소는 우리 병 사들이 잘 지킬테니 석탄전선을

부탁한다고…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 으로 석탄생산에 모든것을 바쳐 가는 그의 모습은 중대원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졌다. 전영심동무도 마찬가지였다. 동 생인 전경철동무가 생소한 탄광일 에 빨리 익숙되도록 적극 떠밀어 주었을뿐아니라 중대에 가족지원 소대가 조직되게 되였을 때에도 선참으로 그 자랑스러운 대오에 들어섰다. 탄부들의 친누이, 친어 머니가 되여 그가 바친 헌신의 낮

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그들에 의하여 구원된 서철성 동무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였 을 때 여러가지 음식들을 안고 매 일같이 찾아오던 전영심동무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탄부들 누구나 그들에 대한 이런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추억

을 안고있다. 3갱 분초급당비서 최순철동

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바란것은 오직 석탄 증산이였습니다. 지금도 진짜배 기탄부가 된 다음 대학에 가겠 다면서 대학추천을 마다하던 전 경철동무와 늘 탄부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안고 갱 으로 달려오던 전영심동무를 잊

을수 없습니다.》 탄부들이 잊지 못해하고 집단이 추억하는 전경철, 전영심동무들,

늘 마음을 지하막장에 두고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온 참된 보답 과 의리의 길, 그 길이 어찌 끝 났다고만 볼수 있겠는가.

그들은 오늘도 래일도 석탄증 산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위훈 에로 고무추동하며 전진하는 대오 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리건일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 삼가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몽골의

추위속에서도 김정일화가 만발

한것은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몽골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이

어려있기때문이다,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

을 강위력한 나라로 강화발전시

키신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하

몽골조선친선협회 지도리사

회 성원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

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강력한 정

치군사적토대우에서 오늘 조선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

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그이께

충정 다해가는 일심단결된 군대

와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은 앞으

로도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라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정에 떠받들려 불멸의

더욱 강렬해지는 경모심과 뜨거

꽃 김정일화는 세계 진보적인류

의 심장속에 영원히 뿌리내

리고 만발할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

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

민의 마음속에 더더욱 아름답게

로 벌어져 많은 전기가 절약되

고있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명용전력을 리용하게 할수는

김동일, 조봉선동무를 비롯한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할수 있는 기술적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적극 개발도

입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실례

륙지에서 흘러나가는 오염물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

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질들의 대부분은 습지를 통하여

려과되고 정화되는것으로 하여

토양의 오염과 바다환경의 오염

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이로부터 습지를 자연의 신장

습지는 또한 동식물이 살아

가는데 적합한 생태적조건을

가지고있어 생물다양성보호에

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

히 습지는 철새들의 중요한 도

중체류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습지는 인간에게 물

고기, 조개, 새우 등 수산물과

약원료, 소금과 석고 등 광물질

을 제공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그밖에 습지는 경제발전과 과

학연구, 관광 및 휴양의 측면에

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 세

계적으로 보면 휴양지들과 관광

복 사 제

지들은 대부분이 해안과 호수,

것이 특징이다. 주목되는것은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도입전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충

분히 식힌 불통에 적당한 량의 물

과 혼합한 복사제를 센 솔로 피

복한다. 복사제를 피복한 후 손상

되지 않도록 불통이 완전히 마른

다음 불을 피운다. 지금 이 열복

사제가 많은 가정들에 도입되여

실지 뚜렷한 은을 내고있으며 리

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보다 훨씬 감소되는것이다.

약 6천만명의 사람들이 습지

에 직접 의거하여 살아가고있

주시였던것이다.

준다.

한다.

지한다.

다고 하다.

전자일용품연구집단 과학자들

조 향 미

용

자

고 하였다.

피여날것이다.

司

없겠는가.

하였다.

인류의 마음속에 만발하는 태양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진보적 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태여난 김정일화는 오늘도 불멸의 꽃,위인칭송의 꽃으로 누리에 빛을 뿌리고 있다.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더불어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와 고매한 덕망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 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흠모심은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 있으며 전세계를 위인칭송의 열 기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지난 3년간 세계 여러 나라 에서 60여차의 불멸의 꽃전시 회가 진행되고 10여만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된 사실만 놓고 보아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 야말로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 하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심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 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크기 와 색갈, 우아함에 있어서 그 어느 꽃에도 비길수 없는 명화 중의 명화로 공인되여있으며 세계화초계에서 최고의 지위 를 차지하고있다.그것은

김정일화가 국제원예학회에 등록되고 세계원예박람회들과 국제화초전시회들에서 최고상 들을 수여받은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2012네데를란 드 벤로세계원예박람회에서 최고 상인 1등상을, 2014청도세 계원예박람회 국제분재경쟁에 서 특별전시상을 수여받은것으 로 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명 화임을 다시금 실증하였다.

절세위인에 대한 진보적인류 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에 받 들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오늘 세계의 곳곳에서 광범히 보급되고있다.

지난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기네국내국제방송은 《김정일화 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방송을 진행하였다.방송은 《김정일화는 일본의 한 원예가 가 20여년간의 고심어린 노력 끝에 육종해낸 베고니아파의 가 장 아름다운 붉은색꽃이다.정 의와 평화, 진리와 아름다움, 미 래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꽃 을 육종해낼것을 리상으로 간직 하고 한생토록 온갖 심혈을 기 울여 육종해낸 이 꽃에 그는 자 신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 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김정일령도자의 존함을 모시 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여러 기회들에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 을 절감하고 김정일화를 육종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꽃육종연구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끝끝내

완성해낸데 대하여,주체77

(1988)년 2월 16일 김정일령도자각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자신이 육종한 꽃에 김정일령도자의 존함을 모시고 김정일령도자께 삼가 편지와 함 께 꽃을 올린데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그가 삼가 올린 김정일화를 몸소 보아주시고 대 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일본의 원 예가를 높이 치하해주시고 꽃에 대한 소개도 하고 꽃을 많이 번 식시켜 보급하도록 하여야 하겠 다고 교시하신데 대하여, 미국베 고니아협회가 김정일화의 독특 한 원예적가치에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고 2004년 김정일화 를 베고니아의 새 품종 991호

로 등록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협 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김정일화는 관상적으로 조화 를 잘 이룬 보기에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이다. 이 꽃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다.》라고 쓴데 대하 여 전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세계적으 로 수많은 나라들에 급속히 보급

되고있다. 》라고 보도하였다. 이 사실만 놓고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위인흠모의 열기,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인류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세계 인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지난해 12월 위대한 장군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 라에서 진행된 불멸의 꽃전시회 장들에서 울려나온 진보적인류 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절절한

리는 몽골에서도 울려나왔다. 로씨야 나호드까에서 진행된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는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김정일화전시회에서 붉게 핀

불멸의 꽃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본 나호드까시 부시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조선인민에게 나호드까시행정부와 시민들의 이름으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록 애석하게 서거하시였어도 조선의 번영과 로조친선관계발 전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로씨 야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로씨야런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 1 비서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사회주

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실천으로 조선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인류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조선을 자주성이 강한 국가, 인민적시책이 훌륭히 실 시되는 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 며 강력한 군사력도 마련하시 였다. 오늘 조선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 전진하고있다. 나호드까시 공산당원들은 조선인민의 투쟁 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며

이다.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목소

조선인민과 한전호에 서있을것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과

弃

े

0

첾

《연풍호는 불도 좋고 주 변의 경치도 매우 아름답습 ₩ ÜĞ.» 연풍호는 안주

시와 개천시사이 에 자리잡고있다. 안주와 개천의 년평균기온은 각 각 9.8℃,년 강수량은 각각 $1 \ 0 \ 2 \ 5 \ mm$

1 078mm,년

평균바람속도는 각각 1.9 ‰, 2.0% 등인것 으로 하여 연풍 호의 생태환경은 풍 아주 좋으며 아 름다운 경치가 펼쳐져있다. 호수주변은 낮

은 산들로 둘러

싸여있다. 거기에는 소나무, 이깔나무, 밤나무, 참나무, 황철나무, 잣나 무들이 우거져있고 뻐꾸기,물 오리, 청조, 분디새 등이 보금자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 봄맞 이꽃, 살구꽃 등이 활짝 피여 향 기가 그윽하고 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이 호수에 비껴 황홀 경을 이룬다.

리를 펴고있다.

기념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갖가지 물고기들이 헤염쳐다니 고 유람선들이 푸른 물결을

연 스 위

까지 드시며 구체적으로 말씀하

신 장치가 바로 조명용자동지연

스위치였다. 과학자들의 자책은

지연스위치를 만들어서 새로 일

우리가 좀더 일찍 조명용자동

야말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 답다.

이뿐이 아니다.

연풍호의 북쪽 산봉우리에는 호수와 그 주변의 자연풍치를 다 볼수 있게 지은 연풍루가 솟 아있고 호수기슭에는 근로자 들을 위한 정양소, 휴양소, 유원 지와 함께 소년단야영소가 있다.

이렇듯 경치가 아름다울뿐아 니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에 종합적으로 리용 되고있는 연풍호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연풍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 수들중의 하나이다.

지난날 청천강을 옆에 두고도 가물에 타는 곡식을 살릴수 없 어 큰 재난과 불행을 당하기만 했던 이 고장 농민들의 물에 대 한 세기적숙망을 가셔주시려 연 풍호건설의 응대한 설계도를 펼 치시고 공사를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공사가 완공되였을 때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평남관개가 완 공된 결과 이제는 열두삼천리벌 에 해마다 풍년이 들게 되였 다고 기뻐하시며 몸소 호수이름 을 《연풍호》라고 지어주신 우리 수렁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을 길이 빛내여갈 뜨거운 충정 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은덕을 전하는 평남관개 유래비를 세울데 대한 가르치심

실지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에네르기절약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대규모산업부문에

서뿐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분야에서도 전기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

2009년자료에 의하면 조

명용전력의 소비량은 발전된 나

라들에서 국가전력량의 12%

정도,세계적으로는 약 20%

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런데로

부터 레드등과 같이 전력소비

가 훨씬 적은 조명등을 개발도

입하는것과 함께 효과적인 조

명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없이

랑비되는 조명용전력을 절약하

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

로 이 과정에 개발도입되고있는

장치로서 종류만 해도 소리 및

진동수감식, 적외선수감식, 다

치기수감식, 용량수감식 등 여

조명용자동지연스위치도 바

야이다.

행되고있다.

헤가르며 오가는 호수풍경은 그 을 주시고 유래비자리도 정해주 시며 세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시

였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평남관개유래비가 연풍 호기슭에 정중히 세워지게 되

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뜨거운 사랑이 깃들 어있는 연풍호기슭에 오늘은 우 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 자, 기술자들을 위한 사랑의

금방석을 마련해주시였다.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굣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길 아 닌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휴양 소터전을 확정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

볼수록 경치가 좋다고, 명당 자리라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여기에 세상에 다시없는 과학자 휴양소를 지어주자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 모두는 한없는 격정으로 눈굽을 적시지 않았던가. 연풍호는 온 나라에 소문난 희한한 과학자휴 양소가 자리잡은것으로 하여 더 더욱 유명해졌다.

진정 연풍호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세기와 세기 를 이어 전하는 증견자, 뜻깊은 기념비이다.

하기에 연풍호의 물결은 끝없 이 설레인다.절세위인들의 인민을 위한 하늘같은 은덕을 길이길이 노래하며.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교수 박사 리재길

한다.

그러면 우리모두가 다 같은

생활공간에서 함께 살고 일하면

서도 누구의 눈에는 전기절약기

술을 받아들일수 있는 대상이

보이고 누구의 눈에는 보이지

가로등과 건물

의 장식등, 간판

조명등 등에로

확대되고있다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간다. - 평양철도국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본사기자 찍음

끝없이 울려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

합흥시 사포구역 로라스케트장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정서생활은 사람들

로 하여금 높은 분화적소양을 가지고 유쾌하고 아름답고 고 상하게 살게 하는 사회생활의 한 분야입니다. » 함흥시 사포구역 로라스케트

장은 이곳을 찾는 학생들과 어 린이들로 언제나 붐빈다.겨울 날씨는 차지만 그에는 아랑곳 없이 여기 로라스케트장에서는 기쁨과 랑만에 넘친 학생들과 부모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큰 물결모양, 움푹 패인 웅뎅 이모양의 주로도 있고 골뱅이 를 형상한 주로도 있는 로라스 케트장은 청소년들의 활무대인 듯 싶다.

금방 아래로 지쳐내려간것 같 은데 어느새 불쑥 솟아오르는 소녀들이 있는가 하면 공중에서 의 급격한 방향전환기술을 뽐내 는 소년들도 있다. 경기주로에

스트로브스소나무

데 제일 적지는 우리 나라

중간지대의 토양속물기가

충분하며 땅층이 깊고 영양

물질이 풍부한 북쪽, 동쪽,

먼저 1 m×1 m넓이로 땅을

고루고 거기에 4 Ocm×4 Ocm

×30cm크기로 구뎅이를

나무모는 3~4년 키운 길

이 20㎝이상,뿌리목굵기

6 mm, 뿌리길이 2 O cm 이상

되는것을 심어야 한다.정보

당 2 500그루기준으로 심

혼성림을 조성하는 경우에

는 스트로브스소나무와 넓은

잎나무의 비률을 7:3 또는

6:4로 하는것이 좋다. 김매

기와 잡판목베여주기는 어린

시기 천천히 자라는 이 나무

의 특성을 고려하여 5~7년

세 잎 소 나 무 와

개량세잎소나무

않는 나무이다. 개량세잎소나

세잎소나무는 땅을 가리지

간 계속하여야 한다.

서쪽산비탈면이다.

판다.

는다.

나

들

와

꾸

71

스트로브스소나무를 심는

령 도 자 나선 속도빙상선수처럼 기세좋 게 팔을 내저으며 제법 씽씽 지 쳐나가는 소학교학생들,서로 손을 잡고 휘거를 하듯 우아하 면서도 경쾌한 기교동작을 펼치 는 중학교학생들…

그런가하면 나란히 손잡고 쌍 무를 추듯 기교를 부리는 소녀 들도 있다.

로라스케트타기에 여념이 없 는 자식들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도 웃 음꽃이 활짝 피여있다. 사포구 역에 사는 두 어린이가 기교동 작을 펼칠 때마다 그들의 할머 니와 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넘실거린다.

《저 애가 우리 손자입니다. 손자애가 즐겁게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느라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다 시 저 시절로 되돌아간것만 같 은 심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며칠사이 얼마나 솜씨가 늘었는지 나 도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애는

무는 세잎소나무와 홰불소나

무를 섞붙임하여 만든 나무인

데 적지에서 세잎소나무보다

1.5배나 빨리 자라지만 온

도,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세

북도, 평안남북도의 해발

600m이하 되는 낮은 산지

정보당 심는 그루수는 3 0

00~5 000그루이다. 심

을 구뎅이는 4 0 cm×4 0

cm×30cm크기로 판다. 심은

해에 세번, 두번째 해에 두

번, 세번째 해에 한번 풀을 베

10~20년 자랐을 때

2~3월에 땅겉면으로부터

30cm높이로 그루를 남겨두

고 베여쓰면 그루터기에서 여

러개의 움들이 돋아나 다시

자란다. 그가운데서 튼튼한

움가지만 1~2대 남기고 나

머지는 따주는 방법으로 숲을

곰솔은 바다바람을 맞아야

병해충이 끓이지 않고 잘 자

라므로 해송이라고도 한다.

솔

여주어야 한다.

조성한다.

대들에 배치하는것이 좋다.

세잎소나무류는 황해남

잎소나무보다 높다.

매일같이 여기에 놀러 오는데 체력단련에 정말 좋습니다.》 부모들모두가 여기 로라스케 트장에 오면 기분도 즐거워지고 마음도 젊어지는것 같다고 한결

같이 말한다. 《정말 우리 로라스케트장에 서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 그칠새 없습니다. 저렇게 행 복에 웃고뗘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 시려 오늘도 머나먼 전선길, 현지지도길에 계실 원수님생각

에 가슴이 젖어옵니다.》 로라스케트장 관리원 고일미 동무의 말이다.

그렇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 주의자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웃음을 빼앗아보려고 제아무 리 책동해도 우리 당의 따사 로운 후대사랑이 있는 한 어 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 명랑하게, 더 크게 내 나라 의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쳐갈

것이다. 주 령 봉

> 면 좋다. 내륙지대에 심으면 병해충 이 많이 발생하고 잘 자라지 못하다. 땅고루기, 구뎅이파기, 심

우리 나라 동서해안의 바

다가로부터 4 km안에 해안바

람막이숲을 조성할 때 심으

트로브스소나무와 같다. 해안바람막이숲을 조성할 목적으로 심을 때에는 나무 사이거리를 가로.세로 각각 1m 또는 2m로 좁게 심어야

기, 정보당 심는 그루수는 스

한다. 짧은잎소나무 짧은잎소나무는 어린 시기 부터 낮은 온도에서 빨리 자 라므로 해발 1 000m이상 의 높은 산지대에 심는것이 적합하다. 낮은 지대에 심으 면 병해충이 많이 끓이고 잘

자라지 못한다. 량강도,자강도를 비롯한 높은 지역에서 심기 좋은 수 종이다. 땅고루기, 구뎅이파 기, 정보당 심는 그루수, 심 은 후 관리 등은 스트로브스

소나무와 같다.

자그마한 제품 하나를 마주하 고있다. 국가과 학원 정보과학

우리는 지금

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만든 조명용자동지연스위치이다. 날 이 어두워지면 동작하게 된 이 전자식스위치는 인기척이 있을 때 소리나 진동을 수감하여 자 동적으로 전등이 켜졌다가 3 0 초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한다. 살림집들과 공공 건물들의 현관이나 복도,계단 등과 같이 전등을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는 장소들에 도입할수 있다.

요란한 발명품도 아닌 이 작 은 스위치가 우리에게 소중히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 심의 발현입니다.»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 자들이 조명용자동지연스위치 에 대하여 관심한것은 여러해전 부터였다고 한다. 나라의 전기 문제는 의연히 긴장한데 인적이 드문 장소들에 필요없이 켜진 전등의 불빛이 과학자들의 마음 을 아프게 했던것이다.

종전의 조명등을 레드등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이 전사회적으

수 대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자원을 잘 보호 해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생활을 높일수 있으 며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할수 있다.》

습지는 인류의 생존과 지속 적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

중한 자연자원 《우리의 으로서 현 세 🛚 대뿐아니라 후 📗

대들의 복리증 🏪 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 이라고도 한다.

지하다. 일반적으로 습지라고 하면 물 이 있는 습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는 썰물때 6m를 초과 하지 않는 바다가수역을 비롯하 여 소택지, 호수, 늪, 간석지, 하 천 등이 포함된다. 습지는 물을 토양속에 축적

하고 호수변두리와 소택지속에 지표수의 형식으로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할뿐아니라 축적된 물량을 자체로 조절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어 장마나 가 물시 물량의 급격한 변화를 억 제하여 사람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주고 지구의 물순환을 완만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습지는 기후를 조절하고 오 염물질들의 오염도를 떨구며 수질을 정화하여주는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

술관리연구소 리죽선동무가 효

도입시험결과 열복사제를 공

업로 또는 가정용불통안벽에 피

복하였을 때 온도가 도입전보다

훨씬 높아져 석탄이 20%이상

절약되였다. 그뿐아니라 저열탄

도 고열탄처럼 안전하게 땔수

있으며 불유지시간이 12시간

이상이므로 불관리에서도 매우

편리하다. 석탄착화에 나무가

적게 소비되며 착화속도가 빠른

능높은 열복사제를 내놓았다.

호 평

의 이러한 생각은 정광룡소장을 떠선 과학자주택지구의 살림집 비롯한 연구소일군들의 적극적 들에 도입했더라면 경애하는 인 지지를 받았고 연구사업이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였 으랴.

동 지

참으로 컸다.

시작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 시제품이 나왔다.여러곳에 시 신 후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 험적으로 도입도 되였고 그 효 군들은 분발하여 조명용자동 과성도 나타났다. 지연스위치를 더 잘 만들어 그러던 지난해 10월 13일 원수님의 현지말씀대로 위성과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소식에 접 학자주택지구의 살림집들에 도

입하기 위해 떨쳐나섰다. 앞으로 이 스위치를 받아들이 면 한개의 레드등에서만도 한해 의 5호동살림집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긴장한 전 에 5 W짜리에서는 4.8 kWh, 기문제를 풀자면 전기절약과 관 7₩짜리에서는 9.6kWh, 9₩ 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짜리에서는 1 2 kWh정도의 전기 를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함께 생활공간에서 전기를 절약

물론 많은 량이라고는 볼수 없는 수자이다. 또 이 스위치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 상에서 그렇게 큰 의의를 가지 거나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여러가지 개

간활동과 자연적인 요인들로 하

여 습지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

고있으며 이것은 지구의 생태환

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리용

해나가는데서 큰 위협으로 되고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습지의

64%가 파괴

』되여 없어졌

🚢 으며 해마다

1900년부터 한세기동안에

2만 4천여정보의 습지가 계속

습지의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물오염 및 물수요

의 증대 등 여러가지 지구환경

자료에 의하면 1970년부

습지의 파괴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의

심각성으로 하여 유엔에서는

1971년 2월 2일에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

9 7 년부터 습지협약이 채택된

터 2010년사이에 민물에서

사는 생물종수가 76%나 줄어

파괴되고있다고 한다.

문제들을 산생시킨다.

들었다고 한다.

기로 결정하였다.

강을 낀 지역들에 있다.

있다.

러가지가 있으며 응용범위도 건 물의 내부조명등을 벗어나

립춘은 24절기의 첫번째 절

기이다. 립춘이란 봄계절에 들어선다 는 뜻이다. 력서에는 립춘외에 립하,

립추, 립동 즉 여름, 가을, 겨 울계절의 시작을 알려는 జ기를 이 올라있다. 우리 선조들 기 리춘에 소와 판련된 하는 풍습도 있었다. 1 만은 독특한 형식의 의례풍습 🔘 으로 맞군 하였다.

립춘에는 모든 지방들에서 집안팎을 깨끗이 손질하고 새 해의 소원과 새봄을 경축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문설주, 벽장,창고문같은데 붙이 절 였다.

립춘에는 특식으로서 움 파, 산겨자, 신감채(승검초) 7 등을 먹었다.

겨울한철 움안에서 자래운 파는 립춘에 먹는 음식들가운 데서 빠져서는 안되는 음식의 하나였다. 그것은 이무렵에 절기와 토양의 변화작용이 진 행되고 인체의 신진대사가 왕 성해지는것으로 하여 다른 때보 다 파를 많이 섭취하는것이 건 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기때문이다. 이날을 세계습지의 날로 기념하 산겨자라는것은 눈녹을무렵 에 산에서 절로 자라는 겨자로 올해 세계습지의 날의 주제는 서 그것을 더운물에 담그고 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습지》 기에 초장을 치면 그 맛이 참 본사기자 독특하다. 신감채는 움에서 키

들이 적극 개발도입되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 그중의 하나가 전력소비의 적 하신것처럼 절약은 곧 애국심의 지 않은 몫을 차지하는 조명분 발현이다. 크기로는 잴수 없는

않는것인가.

것이 애국의 마음이다.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과학자 들이 만든 자그마한 조명용자동 지연스위치가 그렇듯 소중히 안 겨오는것은 그것이 지혜와 재능 의 산물이기 전에 조국이 안타 까와하는 전기문제해결에 단 1 W의 전기라도 절약하여 이바

이 안아온 열매이기때문이다. 누구나 전기를 떠나 현대문명 을 생각할수 없다고 말만 하고 전력사정이 긴장하다고 우는소 리만 할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애국의 마음을 안고 다시한번

지하려는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

눈여겨 살펴보자. 자기 주위의 생활공간에는 어 떤 전기절약기술을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려명희

운 약초인데 꿀을 찍어먹으면 맛이 좋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립춘에 신선한 산나물이나 움에서 키운 남새를 먹으며 봄의 향취를 맛보았고 새해의 건강을 도모

립춘에 소와 관련된 의식을

일부 지방에서는 립춘에 나 무로 만든 소를 마을로 끌고 돌아다니였으며 제주도에서 는 립춘 전날에 나무소를 만 들어 제사지내고 다음날 나무 소에 농쟁기를 메워 받가는 시늉까지 하였다. 어떤 지방 에서는 소를 끌어내여 채찍 질을 하며 소를 부리는 의식 을 하였고 소에 멍에를 메워 시험삼아 몇마지기의 논밭을

가는 의식도 하였다. 이러한 풍습들은 립춘을 맞 으면서 농사일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농사철이 다가온다는것을 알 리였으며 철을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차비를 갖추도록

고무하였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 립춘에 진행된 의례풍습만 놓 고보아도 슬기롭고 문명하며 근 면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실장 입 승 빈





잘 알수 있다.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로 일떠선 인풍원에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 강계시에서 -본사기자 찍음

세계는 선군조선의 승리를 확신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무 엇때문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고계시기때문이다.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 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 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 하는 강력한 보루이다.》

이것은 얼마전 벌가리아신문 《노보 라보뜨니체스꼬 델로》에 실린 글이다. 백승의 선군령도 로 미제의 압살책동을 짓부셔버 리시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더욱 빛내이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탄의 목소리 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인공지 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의 성과적발사와 제 3차 지하핵 시험에서의 성공을 구실로 더욱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 들의 압살공세에 단호한 대응조 치로 강경히 맞서나가도록 하시 였다. 조선의 초강경대응과 견 결한 반제혁명적립장은 반미대 결정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참으로 그 존함만 들어도 미제 와 세계반동들이 공포에 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선 의 군대와 인민뿐아니라 세계 반제혁명력량의 최고사령관이

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기네군 알마미 싸모리 뚜레병

영 제 1 특공대장은 김정은각하 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판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3년 간 국제사회는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수호하시는 걸출한 령장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핵위협과 전쟁 책동을 짓부셔나가시는 나날에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무비의 기상과 담력을 남김없이 과시 하시였다. 지난 3년간 세계는 뜨거운 동지애에 기초하여 전군 을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부대로 다지시고 군대를 주력으로 조국 수호뿐아니라 경제건설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신 희세의 천출명장의 모습을 보았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인민군군인들은 문수 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 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 영소 등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 다. 세계는 앞으로도 강력한 군 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수호전 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성 과를 끊임없이 이룩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모습을 보

게 될것이다.》 로씨야 모스크바주 드미뜨로 **브시 부시장은 《김정은각하께서** 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조선을 우주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 시키시였다. 이 나날 그이께서 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특출한 실력을 온 세계에 보여주시였 다. 》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 학부 강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나라의 군력을 철통 같이 다지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 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신 가장 걸출한 최고사령관으로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사 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 다란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조선 의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그이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 하신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 을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충직하게 계승발전시키시는 걸출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 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각계층 인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선인민은 정의의 위업, 사회

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인민의 모습을 보며 선군혁명 위업의 정당성과 최후승리를 확 신하고있다.

인디아주체사상자력갱생연구 회 서기장은 김정은원수각하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은 미국과 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 다, 김정은원수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의 통 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 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 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정은령도자는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 천출명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령군술 로 당과 국가, 군대를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선군령도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 고있다.김정은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 다.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은최고사령판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선군조선의 상징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시다.

미제를 비롯한 내외의 호전세 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와도 우 리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언제 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

들

인

끝없이 베풀어지는 당과 국 가의 고마운 인민적시책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는 근 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 넘친 모습은 우리 나라를 방문 한 외국의 벗들에게 지울수 없 는 인상을 남기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빠뜨릭끄 꾸엔쯔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된 삶을 향유하고있는 조 선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국가 적혜택이 근로대중에게 돌려지 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 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인류의 꿈과 리상이 이 땅우

외 국

에 꽃펴나고있다. 조선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

제도가 세워진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네팔 박따뿌르시친선대표단 단장 람 마니 바따라이는 이렇 게 토로하였다.

귀국을 처음 방문하였지만 체 류기간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교육 분야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교육사 업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아래 세워지고 자기의 생활력을

래를 결정하는 국사로 내세우

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공고히 한 조선의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발 전하고있다.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속 에서 마음껏 희망의 나래를 펼 치고있는 조선의 학생들과 인 민들이 정말 부럽다.

교육을 중시하고있는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네팔 박따뿌르시친선대표단 성원 쑤렌드라 라즈 고싸이는 지금 서방출판물들은 조선에 대하여 온갖 악선전을 다하고 있다, 귀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있다, 그러 나 이번 방문을 통해 그것이 허 위날조라는것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삶을 누리는 조선인민의 모습 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적극 소개선전하겠다고 자기의 소감을 터놓았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문화 대표단 단장 하리 운또로 드라 쟈뜨는 방문기간 조선의 사회 제도가 인민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고 하

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인민을 위 한 정치가 실시되고있으며 인민 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모든 정책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펼쳐지고있는 조선은 진정 훌륭한 사회주의나라이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할것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정책국 성명《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가 엄한 시선으 로 주시하고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를 1월 25일 부터 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관 계정상화를 위한 호소에 대해 응 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긍정 적으로 호응하지 않고있는 남조

령도예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사

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여래 나 라 에 서 선당국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

명에서 공화국의 제안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시비중상을 배격 하였다. 성명은 불순적대세력들이 경

제적질식, 군사적압살에 매달려 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성명은 미국과의 합 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남조

아시아대륙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윁남은 세계적인 쌀수출국이

다. 비옥하고 넓은 경지면적에서

식량을 생산 및 수출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쌀창고》로 불리우

고있다. 웰남은 손꼽히는 커피생

산국이기도 하다. 윁남의 각지에

서 재배되는 커피는 그 질이 좋은

기본적으로 현대화된 공업국가를

건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가 높아가고있는 실정에 맞게 재

생에네르기개발을 국가전략에서

가장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

윁남은 국내에서 에네르기수요

힘

것으로 하여 널

리 알려져있다.

2020년까지

윁남에서는 공

산당의 령도밑에 🏎

선당국을 규탄하고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라고 밝혔 다. 남조선당국은 조선의 호소

에 끝끝내 거역해나서는 경우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성 명은 경고하였다.

로씨야의 신문 《아르구멘띠 이 팍띠》, 에호 모스크비방 송, 인터네트통신들, 공산당

윁남은 전망성있는 생물가스와

픗력. 태양에네르기, 지열을 리용

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후

원속에 재생에네르기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생물가스생산방법과 태

양에네르기개발 및 휘발유절약기

술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교육

늘이기 위해 2030년까지 능

력이 큰 핵발전소들을 건설할것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기술발전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현재 이 나라

에는 여러개의 정보기술기지가

있다. 3만 5 000여명의 기술

자들과 프로그람제작자들이 여기

도 계획하고 추진시키고있다.

발 전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인 터네트홈페지, 캄보쟈신문《꼭 쏜때피앱》, 미국의 VOA방송,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브라질공산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 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조선국방위원회 남조선당국 에 원칙적립장을 천명》등의 제목으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의 전문 또는 요지를 보 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가 깃든 세상에서 자기 의 존엄을 떨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와 인민은 없다. 그러나 그 념원 은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침 략책동으로 하여 마구 짓밟히

하다면 민족의 자주권과 존 엄을 수호하며 번영을 담보해 줄 가장 옳바른 정치방식은 과 연 무엇인가.

국제사회계는 그 해답을 위대한 선군정치에서 찾고 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메히꼬 로동당대표단 단장은 《선군 정치가 있어 조선의 군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 과 공갈도 단호히 쳐갈기며 적 극적인 공세를 취할수 있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참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

게 피력하였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 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이다. 공 화국은 여러차례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면하면서 오늘까지 남조선을

길로 폭풍쳐달리였다. 라오스건국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신심과 락판에 넘쳐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목격 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 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동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한사코 외 하는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조

기네농업성 농업과학총국장 은 사람들모두가 사회의 주인 으로서 긍지높은 생활을 누리 고있는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 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 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일뗘서

고 훌륭한 새 집들이 무상으로

(4 0000 안전 평화와 수호하는 만능보검

선에서는 인민의 리상이 현실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대조선 압살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을 수호하는 보검은 바로 선군정치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공 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침 략세력의 횡포한 책동으로 하 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였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선군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의 침략 조되고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적도전을 짓부시며 비약의 한

로 꽃퍼나고 기념비적창조물들 마다에는 열렬한 조국애를 지 닌 조선인민의 헌신적인 노력 이 깃들어있다, 령도자의 두리 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경제 강국의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고있다, 조선에서 이룩 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그이의 크나큰 로고에 의해 조선에서 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

피력하였다.

근로자들에게 차례지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고마운 이 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무 한한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는것 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 쳐 충천한 투쟁기세로 부강조 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조 선인민이 더 큰 번영을 이룩하 리라고 확신한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에 로 이끌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정력적 으로 령도하심으로써 조선에 서는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 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세계적인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게 되였다. 군대와 인민 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는 온 나라에 대혁신,대 비약의 불바람을 안아왔다. 군 대가 앞장에 서고 인민들이 군인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는 속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 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 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 의 위대한 승리라고 찬양하고

있다.》 그렇다. 강철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 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고 여기에 국가적힘을 넣고있다. 2030년에 가서 웰남이 국내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키자면 많 은 량의 에네르기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연구사들은 에네 르기수요량이 년평균 13~ 15%씩 늘어나면 될수록 많은

이 있을것이다.

김 수 진

재생에네르기를 개발하여야 할것 으로 보고있다.

웰남정부는 앞으로 국가적투자 를 늘여 1 9개 기지를 더 건설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조선업을 2020년까지의 중

서 일하고있다고 한다.

점발전부문으로 정한 윁남정부는 여기에 힘을 넣는 한편 나라의 3대수출항목의 하나인 천제품의 생산 및 발전사업도 강하게 내밀 고있다.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번영과 사회적진보를 이 룩하기 위한 윁남인민의 노력은 오늘 응당한 결

실을 맺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 나라 의 완전해방과 망도 운영하고있다. 전력생산을 통일을 이룩하며 혁명의 전취물 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 기 위한 윁남인민의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지지성원하였다. 자주와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 여 친선협조를 강화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윁남인민의 투쟁에 부 합되는것으로서 두 나라 관계발

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올해 1월 31일은 우리 나라와 웰남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

정된지 65돐이 되는 날이다. 김 국 철

들 의 책 동 에 단호 히 맞서 나가야 강 조 한 다 고

베네수엘라대통령 니끌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최근 국회에 서 연설하면서 볼리바르혁명은 승리적으로 결속될것이라고 언 명하였다. 그는 국내의 불순세 력들이 볼리바르혁명의 지도자 우고 챠베스가 사망하면 베네 수엘라혁명도 저절로 실패하게

될것이라고 허황한 꿈을 꾸면 서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혁명을 말살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해온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나 라의 안정을 파괴하려는 적들 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에 경고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 책위원회 대변인이 1월 24일 이스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 재책동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였 다. 그는 미국회가 새로운 반 이란제재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 면서 이를 이란핵문제와 관련 한 제네바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락인하고 그것이 앞

으로 있게 될 핵회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제재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란정부는 새 세대 원심분리기를 리용하여 농축우라니움의 순도 를 60%로 끌어올릴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회담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0

경제침체의 후과로 일자리축감

2015년의 첫달이 지나갔다.

인류는 새해를 맞으며 올해에는 어

떻게 하나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

기를 념원하였다. 그러나 1월의 국제

정세흐름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

거나 양보하는 방법으로는 평화와 안

정을 절대로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톡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의 평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해에 들

어와 인류의 기대와 지향에 맞게 미

국이 정책전환을 하고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것을 여러차례 호

소하였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

리 군대와 인민의 호소는 세계민심을

뜨겁게 달구고 국제적인 환영과 지지

그러나 그처럼 바쁘디바쁜 년말년

시에 흑인살해만행과 같은 각종 사회

악으로 혼잡탕이 된 미국내 정사는

돌보지 않고 하와이섬에서 골프놀이

로 시간을 보내며 국내외적인 물의만

일으키던 오바마는 지난 1월 2일에

황급히 우리에게 추가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행정명령을 발동

하는것으로 올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의 첫 시동을 걸었다. 미국회 하원은

인 다음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실

현방도를 찾는데 열을 올리며 복닥소

미국은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

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으

화보장에 대한 국제적관심은 매우 컸다.

톡히 보여주었다.

를 불러일으켰다.

동을 피웠다.

사태가 벌어지고있다. 1월 27일 이 나라 로동성은 지난해 12월 에만도 전국적으로 8 100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아메리칸 엑스프 레스금융회사도 최근 구조조정 의 명목밑에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앞으로 4 000명이상의 근로자들이 무

정들이 파괴되고 사회적인 우려

자본주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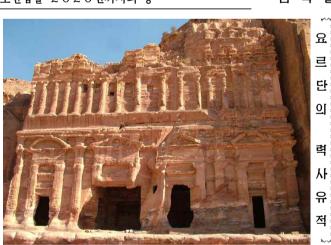
를 불러일으키고있다.지난해 12월 31일 이 나라 후생로동성 은 2014년에 22만 2 000쌍의 부부가 리혼하였다고 밝혔다.

각 종 범 죄 미국의 뉴욕시에서 1월 25일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일으켰다. 시의 맨하탄에 있는 백화점에서 한 남성이 함 께 일하는 자기 동료에게 마구

죄가 성행하여 사회적불안과 공 포가 커가고있다. 1월 22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은 지난해 9월 까지의 1년동안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 700만건의 범죄 가 감행되였다고 밝혔다. 그중 폭력범죄건수는 130만건에 달

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살인, 강탈, 강간 등 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불안 과 공포가 날로 커가고있다. 1월 8일 이 나라 경찰청은 지 난해에 전국적으로 121만 2 240건의 각종 범죄가 감행

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지난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농업생산을 늘이 기 위한 일련의 혁신적인 기 술들이 개발되였다. 그중 일 부를 소개한다.

고속씨뿌리기체계 어느 한 나라에서 고속씨 뿌리기체계를 도입하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결과 이 나라의 적지 않은 농장들에 서 씨뿌리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게 되였다. 이 체계의 ---- - 1·2·기 비해 연료 사 또한 훨씬 절약할수 있게 되 여이지 느끼는 도입으로 이전에 비해 연료 였으며 농산물의 원가도 낮

아졌다. 지능씨뿌리기체계 밭의 구조에 따라 m²당 씨 뿌리는 량을 조절할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씨뿌리기를 하 는 지능씨뿌리기체계가 개발 된것은 지난해 세계적인 농업 분야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이다. 이 체계가 개발됨 으로써 씨뿌리기효률을 최대 로 높이고 주요하게는 종자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련 フ[다통로분무체계

이 체계는 농약과 비료를 주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되였다. 이 것을 리용하면 최고 24종 의 농약(살초제, 살균제 등) 을 밭에 분무할수 있다.이 체계의 개발로 연료를 절약 하고 토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막을수 있게 되였다. 콤퓨러화된 관개 및

비료주는 체계 일부 나라들에서 관개 및 비 료주는 체계를 콤퓨터화하여 농업생산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콤퓨터화가 실현된 결 과 밭들에 설치된 수감부들 이 필요한 비료량과 식물의 뿌리계통상태에 대하여 중앙 처리장치에 통보한다. 결국 올해 첫 청문회대상에 우리 공화국을 지난 시기 비료를 지나치게 ! 올려놓고 행정부관계자들을 불러들 혹은 불충분하게 주어 수확! 고를 떨구던 결함들이 극복 되고 값비싼 농약들의 소비 정형이 전반적으로 통제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경 Æ 침 체 프랑스에서 지난해 12월에 전국적인 자동차판매량이 그 전 해 같은 달보다 6.8% 감소되 였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지난해 자동차판매량이 그 전해

에 비해 2% 줄어들었다 한다. 일자리축감사대 카나다의 앨버타주에서 경제 침체의 후과로 일자리축감사태 가 벌어지고있다. 주당국이 발표 한데 의하면 최근 광업부문에서 만도 약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 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리로 해고당하게 된다.

리혼 성행 일본에서 리혼이 성행하여 가

총질을 하여 살해하였다. 백화점 안은 일대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고 한다. 한편 영국에서 각종 범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합동군사연습은 《투명하고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연습》이라느니 뭐니 하

며 전면거부해나섰다. 그러면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려는 야망을 로골적으

로 드러내놓았다. 오바마정권은 우리

의 《싸이버공격》뿐아니라 핵무기와

미싸일개발 등에 대한 《단호한 대

응》을 뗘들어대며 우리에 대한 압박

과 제재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기 위

미국은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

선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

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못되게 놀

아댔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

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선

언한 력사적인 조치에 대하여서도 미

당국자들은 《과도적인 비용지불로 대

응해서는 안된다. 》는 고약한 소리를

내뱉고 《관계개선은 비핵화에 대한

북조선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가 전

제되여야 한다. 》는 비뚤어진 심사를

드러내보이는 식으로 남조선당국에

은근히 침을 놓으며 북남관계를 개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더욱 악화되

1월의 조선반도정세흐름은 북남관계

이 아니라 대결에로 몰아갔다.

똑똑히 보여주었다.

해 부산을 피웠다.

에 대한 국제적관심도 높았다.

이란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것인가

미국은 이란의 자주권, 핵개발권리 를 말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제재를 가해왔다. 이란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나라와 포괄적인 핵협상을 벌리고있 던 지난해 12월 30일에도 미재무 성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들이댄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개별적사람들 과 회사들을 상대로 한 이 제재의 발 표는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의 협상자

세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지난 1월 7일에 이란이슬람교혁명 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테헤 란시민들앞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장래의 핵회담에서 대이란제재를 철 회할것이라는데 대해 확신할수 없다 고 하면서 그대신 자기 나라는 《저항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 만일 이란이 자기 핵활동을 중지하는데 동의한다면 도리여 미국 은 더 많은 요구조건들을 내놓을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이 옳다는것이 현실로 획 증되였다. 1월 중순에 이란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여러 차례 만나 회담을 진행한 후 이란과 미 국은 쌍무회담을 진행하였다. 뒤이어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 나라 들과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이란과 로 씨야는 그 회담이 《심도있고 유익한

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미국 것》으로 되였다고 평하였다. 이 그에 빗장을 지르며 오직 힘으로 압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란에 대한 추 가제재문제가 집요하게 론의되였다. 살하려는 무모한 야망실현에만 환장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미국회는 회담이 진행되든말든 관계없 이 이란에 추가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

안을 채택하려고 발광하였다. 미곳화 당소속의 국회 하원 의장은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를 워싱톤으로 불러들여 이란에 강력한 추가제재를 들이대는 문제를 놓고 쑥덕공론을 벌렸다.

프랑스, 도이췰란드외무상들은 대이 란추가제재를 시도하는 미국의 책동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였다. 이 사실은 호상간에 제기되는 주요

문제들은 회담의 방법으로 풀어야 하 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미국이 침발린 공약 을 늘어놓을수록 보다 각성을 높여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 모순과 대결이 더욱 깊어지는 로미 관계도 국제적관심사로 되였다.

얼마전에 로씨야외무상은 지난해 2014년을 총화하는 기자회견에 서 미국에 서로의 리익을 고려하여 건설적인 협력의 길로 돌아설것을 호 소하였다. 그러면서 대화는 평등과 서로의 리익고려에 기초하여서만 가 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로씨야의 이 호소를 귀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모두 로씨야에 들씌우고 량 국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그전부 터 유지해오던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로씨야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들이대

고있다. 지난해 9월에 채택된 민스크합의 로 한동안 즘즘했던 우크라이나사태 가 1월에 들어와 다시금 복잡해지고 이 나라 동부지역에서 충돌이 벌어 지자 미국은 상투적수법그대로 로씨

야에 그 책임을 뗘밀면서 새로운 제 재를 들이대겠다고 위협해나섰다. 도 이췰란드, 벌가리아 등 유럽나라들을 끌어당겨 반로씨야제재에 합세해나 서도록 꼬드겼다.그와 함께 로씨야 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것을 바라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대고 지금은 그 릴 때가 아니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반로씨야제재를 더욱 강화하라고 강 박해 나섰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다시금 복잡해지 고있는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당국 을 내부분쟁격화에로 내몰고있기때

문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를 복잡하 게 만드는 장본인이 로씨야이라는것 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고 국제적압 력으로 로씨야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 만일 그에 굴복하면 우크라이 나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미국이 주 도하는 나토의 군사기지로 변하게 되 고 로씨야는 미국과 나토의 포위속 에 들게 된다. 종당에는 로씨야의 주 권이 침해당하고 평화가 엄중한 위

험에 빠질수 있다. 더욱 복잡해지는 로미관계는 미국의 지배주의, 패권주의야망이 달라지지 않 는 한 아무리 관계개선호소를 하여도 호상간에 평등한 관계, 정상관계를 맺 을수 없으며 대결은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월의 정세흐름에서 찾게 되는 교훈 은 미국의 지배주의야망은 절대로 달 라질수 없으며 그것을 분쇄하자면 힘 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리 경 수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13003호)(취급승인 제3호)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7-510181 편 집 위 원 회